

産業革命研究에 있어서의 약간의 問題 — 定義 및 起源에 관한 研究史的 考察 —

金 宗 炫*

<目 次>	
I. 序 言	
II. 産業革命의 定義	
III. 産業革命의 起源	
IV. 結 語	

I. 序 言

經濟史研究에 있어서 産業革命에 관한 연구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도 항상 새로운 관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분야도 없을 것이다. 사실 産業革命은 前近代的 經濟社會가 近代的인 그것으로 變革되는 과정인 만큼 그것은 經濟史學의 중심과제의 하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은 오늘날의 高度産業社會의 역사적 起點이며 發展途上國에서는 현실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제인 만큼 ‘現實的 問題意識’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1세기 동안 産業革命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전되고 특히 오늘날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방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그러나 産業革命에 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되고 있으면서도 研究上의 諸問題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기 보다 크게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연구가 진전될수록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직 밝혀져야 할 史實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인식이 史實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史實究明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문제에 대한 接近方法의 차이이다. 사실 과거 1세기 간에 걸친 研究史에서는 일정한 時代的 背景에서의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接近方法에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따라 産業革命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왔으며 그리니만큼 産業革命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産業革命연구의 기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定義의 문제이다. ‘産業革命’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의미·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時期는 언제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位置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둘째는 起源 또는 원인의 문제이다. 産業革命은 왜 특정한 時期와 國家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이 일어나게 된 前提條件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세째는 産業革命은 어떠한 과정에서 수행되었으며 그것을 뒷받침한 動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네째는 産業革命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産業革命이 결과한 새로운 經濟社會의 構成은 어떠한 것이며 특히 새로운 階級으로 나타난 勞動者階級の 社會經濟的地位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라는 문제이다. 産業革命에 관한 연구는 이들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本稿는 産業革命의 定義와 起源의 문제에 관한 學界動向을 연구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産業革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定義의 문제는 산업혁명 인식의 기본문제이며 그의 역사적 기원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최초’의 산업혁명의 自生的 性格의 인식에 중요한 것이다. 첫째의 문제는 質的·構造論的 인식과 量的·成長論的 인식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둘째문제는 經濟的 측면과 社會的·知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國民經濟의 近代의 變革過程으로서의 産業革命은 18세기 말엽의 英國에서 시작되어 19세기에는 歐美諸國 그리고 20세기에는 여타 諸國으로 확산되어온 것인 만큼 복수의 ‘諸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s)으로 인식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英國의 産業革命도 그들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그러나 近代産業社會의 역사적 기점이 되고 그후 諸國의 産業革命의 역사적 전제가 된 최초의 産業革命은 바로 英國의 그것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본래의’ 또는 ‘古典的’ 産業革命(The Industrial Revolut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本稿에서 ‘産業革命’은 英國의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II. 産業革命의 定義

1. 質的·構造論的 認識

(1) 토인비·헤먼드의 認識

産業革命研究의 선구자로서 ‘産業革命’을 近代經濟史의 기본 개념으로 정립한 토인비

(A. Toynbee)는 産業革命의 본질을 經濟活動에 있어서의 ‘中世의 規制’에 대신해서 ‘競爭’原理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¹⁾ 그 속에서 진전된 經濟的 및 社會的 變革過程을 産業革命으로 인식하였다. 그 경우 변혁의 주된 내용은, (1) 都市人口의 큰 증가, (2) 農地革命, (3) 기계의 도입과 그에 따른 工場制度의 成立, (4) 交通手段의 변혁, (5) 景氣循環의 출현 등이었다. 그 결과 生産力 따라서 富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계급관계 속에서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勞動者의 地位는 악화되었다. 토인비에게는 産業革命은 技術革新에 따르는 生産力·富의 큰 증가라는 經濟過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관계의 큰 變革을 결과한 ‘社會革命’이기도 하였다. 즉 그는 19世紀 産業社會의 특징으로서의 競爭, 工場制, 富의 큰 증가와 分配의 不平等, 資本家的의 고용주와 勞動者라는 새로운 계급관계의 출현 등이 1760년에서 1830년에 이르는 시기의 社會經濟의 근본적 변혁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역사상의 급격한 변혁과정을 産業革命으로 인식하였다.⁽²⁾

激變說——悲觀論으로 특징지워지는 토인비의 産業革命인식은 그의 經濟社會觀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社會改良의 立場에 있던 토인비로서는 産業革命에 의해서 성립한 産業社會는 과거의 經濟社會와는 質的으로 다른 社會였다. 새로 成立한 産業社會는 競爭原理가 지배하는 資本主義社會였다. 資本主義社會의 競爭原理는 生産面에서는 技術革新을 자극하고 生産力 그리고 나아가서 富를 크게 증대시켰지만, 分配面에서는 不公平 즉 富益富·貧益貧을 결과하여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한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를 악화시켰다. 이에 分配의 不公平을 바로 잡고 社會正義를 실현하려면 分配面에서 國家干涉으로 競爭原理를 제한하고 勞動組合이라든가 工場法등을 통해서 制度的으로 分配의 公正을 기하여야 한다. 토인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産業革命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토인비의 産業革命인식은 헤먼드夫妻(J.L. and B. Hammonds)를 통해서 그후의 産業革命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헤먼드夫妻는 産業革命을 ‘農業文明에서 工業文明으로의 변화’⁽³⁾ 과정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단순한 技術革新과 그 결과로서의 生産力증대만이 아니라 社會關係의 급격한 변화 또는 새로운 文明을 창조하는 社會革命이라고 규정하고 그 결과 계급間的 분열과 대립의 격화와 社會秩序의 혼란 그리고 勞動者의 地位의 악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들은 勞動者들의 地位가 産業革命에 의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광범하게 구명하고 토인비 命題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토인비의

(1) A. Toynbee,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London 1884), N.Y. 1890, p. 85.

(2) *Ibid.*, pp. 87-93.

(3) J.L. and B. Hammond. *The Rise of Modern Industry*, London, 1925, p. 9.

産業革命인식은 헤먼드夫妻에 의해서 계승되어 ‘古典學說’로서 정립되어 20세기초의 學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2) 망뚜의 認識

토인비의 産業革命인식은 그의 강렬한 문제의식에 뒷받침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先驅의 이었던만큼 産業革命期와 그 이전의 時期와의 관계, 그 起源 및 過程에 관한 體系的·總合的인식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것이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인식되게 된 것은 망뚜(Paul Manteoux)에 의해서였다. 망뚜는 産業革命의 제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들고 있다. 즉 그것은 技術的 觀點에서 生産을 끊임없이 촉진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生産方法 즉 섬유工業에서의 化學的 方法등의 발명과 이용이며, 經濟的 觀點에서는 資本의 集中과 大企業의 설립 및 보급이며, 社會的 觀點에서는 새로운 社會階級の 형성과 계급간의 대립을 내용으로 하는 ‘社會의 實體’ 그 자체의 변경이었다.⁽⁴⁾ 그는 이들 제특징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고 産業革命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뒤에서 보는 連續說의 선구가 되었지만, 連續性위에서 斷絶性을 인식하여 産業革命의 時期를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에서 19세기 초년에 이르는 약 30년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시기에 위대한 技術的 발명은 實用단계에 들어가 工業人口의 大密集地帶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工業프롤레타리아트가 출현하고 낡은 規制는 폐기되어 自由放任體制가 확립되었으며 최초의 工場法(1802년)이 제정됨으로써 그후의 發展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⁵⁾ 망뚜는 産業革命을 英國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全世界에 보급될 최초의 것으로 世界史的 觀點에서 위치 지우고 있다.⁽⁶⁾ 망뚜의 이와 같은 인식은 工業化를 통한 社會經濟構造의 변화와 그의 國際的 波及이라고 하는 現代의 해석과 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마르크스 學派의 認識

마르크스 學派에서 産業革命은 資本主義의 확립과정으로 인식된다. 즉 封建體制의 내부에서 발생한 資本主義는 16세기 이후의 成立期를 거쳐 産業革命에 이르러 확립된다는 인식이다. 産業革命이후의 資本制的 蓄積에 先行한 資本主義成立期の 蓄積樣式은 ‘本源的 蓄積’이며 이 시기의 工業經營의 특징적 형태는 매뉴팩처어(manufacture)였다. 매뉴팩처어는 ‘分業에 기초한 協業’ 體制로서 資本主義的 生産組織이었으나 技術的, 資本的 限界로 말미암아 封建的 社會經濟體制를 무너뜨리고 資本主義體制를 확립하지는 못하였다. 資本主義는

(4) Paul Mantoux,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Paris, 1906), London (1928), 1961, pp. 475-477.

(5) *Ibid.*, p. 43.

(6) *Ibid.*, p. 477.

成立期の 本源的 蓄積과 매뉴팩처어의 발달·성숙을 전제로 필연적으로 발생한 産業革命을 거쳐 확립되었다.

마르크스는 “生産樣式的 變革은 매뉴팩처어에서는 勞動力을 출발점으로 하고 大工業에서는 勞動手段을 출발점으로 한다”⁽⁷⁾라고 인식하고 産業革命의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서 機械를 들고 있다. 매뉴팩처어 단계에서 工場制 ‘大工業’ 단계로 이행하는 결정적 계기는 機械勞動에 의해서 手勞動이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 경우 마르크스는 機械를 發動機, 傳力機構 및 道具機 또는 作業機로 분류하여 道具機=作業機의 발명·이용을 産業革命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産業革命의 출발점인 機械는 하나의 道具를 사용하는 勞動者를 同時に 여러개의 유사한 道具를 조작하면서 單一動力에 의해서 운전되는 하나의 기구로 대체시킨다.⁽⁸⁾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作業機를 위시한 諸機械의 발명·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技術革新과 그에 대응한 工場制 ‘大工業’의 전개에 의한 資本主義의 확립과정이라 바로 産業革命이었다.

産業革命의 역사적 의의는 마르크스에 앞서 앵겔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英國에서의 勞動者階級の 歷史는 前世紀의 後半 증기기관과 綿花를 加工하기 위한 機械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다.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발명은 産業革命을 이르게했으며 이 革命은 동시에 全市民社會를 變革하고 그 역사적 중요성은 이제야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英國은 이 변혁의 古典의 土地이며 그 변혁은 조용히 이루어진 만큼 더욱 험찬 것이었다. 따라서 英國은 또한 이 변혁의 주된 결과인 프롤레타리아트의 古典의 土地이다.”⁽⁹⁾ 이 글에서 앵겔스는 産業革命이 機械의 발명 이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부르조아社會가 전체적으로 변혁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발전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技術革新을 기층으로 하는 生産力의 발전과 資本主義의 生産관계·社會관계의 확립이라고 하는 마르크스學派의 産業革命 인식의 기본적 관점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앵겔스는 産業革命을 유럽諸國에서 일어난 諸革命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産業革命이 英國에 대해서 갖는 의의는 政治革命이 프랑스에 대해서, 哲學革命이 독일에 대해서 갖는 의의와 동일하다. 1760년의 英國과 1844년의 英國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적어도 舊體制期の 프랑스와 7月革命期の 프랑스와의 사이의 차이만큼 크다. 그러나 이 産業的 變革의 가장 중요한 成果는 英國의 프롤레타리아트이다.”⁽¹⁰⁾ 이들 諸國은 각각 다른 영역의 革命을 경험하

(7) Karl Marx, *Das Kapital*. 長谷部文雄譯, 『資本論』(3), 1952, p. 610.

(8) *Ibid.*, pp. 612-616.

(9) Friedrich Engels, *The Condition of the Working-Class in England in 1844* (1845), Introduction by Eri Hobsbawm (1969), reprinted 1976, p. 37.

(10) *Ibid.*, p. 50.

였지만 社會經濟的으로 가장 깊은 영향을 입은 나라는 英國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정립된 産業革命論은 그후 학자들에 의해서 제해적되고는 증되어 왔다. 특히 제 2 차대전 후에 돕(M. Dobb)은 그 동안의 社會經濟史의 연구성과를 광범히 흡수하여 産業革命을 논하였다. 그는 19세기의 經濟的 變化의 특징으로 변화속도의 급속화, 資本主義社會의 번영에 유리한 환경의 형성을 들고, (11) 産業革命의 本質을 “非人間的 및 非動物的 動力을 機械에 장치한 것과 통상적으로 연결지워지고 있는 生産의 性格에 있어서의 變化”(12)로 인식하고 있다. 즉 그는 마르크스가 作業機의 설치를 중요시한 데 대해서 機械動力의 설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든 그것은 生産過程을 변화시켜 勞動者를 工場으로 집중시킬 뿐만아니라 人間과 機械가 한 組가 되어 일하는 共同的 性格을 生産過程에 부여하였던 것이다. 돕은 共同過程의 특징으로 첫째로 分業이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만큼 복잡하게 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生産者의 활동을 機械過程의 리듬과 運動에 순응시킬 필요가 커졌다는 것, 즉 技術上의 均衡의 변화로서 그의 社會·經濟的 反映은 勞動의 資本에 대한 종속화의 증대와 生産者에 대해서 강제하는 힘으로서의 資本家의 役割이 증대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13) 돕은 生産過程의 변화=工場制生産의 출현에 따른 生産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資本家는 낡은 高利貸·商人이 아니라 工業의 指揮者이며 勞動大衆은 經濟的 市民權을 박탈당하고 고용주를 위해서 힘드는 義務의 수행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4)

뒤이어 돕은 産業革命의 經濟革命으로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몇몇 측면에서 이 轉換은 經濟革命이라는 명칭을 받을 만한 價値가 충분히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것이었던 만큼, 변화에 관한 토인비의 古典의 서술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후에 서술된 어느 것도 連續性의 尙배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용어의 포기를 정당화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革命이라는 명칭의 타당성은 技術의 변화 자체의 속도에 있다기 보다 技術의 변화와 産業構造 및 經濟的·社會的 제관계의 構造間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새로운 諸發明이 後者에 미친 영향의 범위와 의의에 있다”. (15) 돕은 轉換이 産業部門에 따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部門에 따라서는 그러한 변화가 튜더時代末期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家內工業은 19세기 후반기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16) 망투와 같이

(11)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ndon, 1946, pp. 256-257.

(12) *Ibid.*, p. 258.

(13) *Ibid.*, p. 259.

(14) *Ibid.*, p. 260.

(15) *Ibid.*, pp. 260-261.

(16) *Ibid.*, pp. 262-265.

그의 漸進性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돕으로써는 部門에 따른 變化의 큰 時差에도 불구하고 産業革命期の 변혁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英國經濟史學界에서의 마르크스 學派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홉스봄(E.J. Hobsbawm)은 産業革命을 ‘經濟成長의 加速化’라고 보는 成長史學者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한편 經濟的 및 社會的 轉換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그는 産業革命을 “단순한 經濟成長의 加速化 만이 아니라 經濟的 및 社會的 轉換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그것을 통한 成長의 加速化”(17)로 규정하고, 그러한 변화의 資本主義的 性格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資本主義的 성격의 변화가 産業革命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고 지적함으로써 非資本主義 형태의 産業革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英國에서의 그것이 資本主義的인 것이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가 ‘資本主義的 工業化’라고 할 때 經濟成長과 함께 生産관계·社會관계의 변화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英國産業革命의 時期를 1780~1840년으로 인식하면서 그 전제로서 先行한 2세기 동안의 계속된 經濟發展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그는 經濟過程의 連續性을 인정하면서 産業革命의 근본적 변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英國의 産業革命이 최초의 것인 만큼 自生的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國內的 條件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유럽 經濟’ 또는 ‘유럽 海上國家의 世界經濟’와의 관련에서, 그리고 ‘先進經濟’와 ‘從屬經濟’와의 관련에서 설명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주의하고 있다. (18) 홉스봄에 있어서 産業革命期の 勞動者의 經濟的地位는 어두운, 悲觀的인 것이었다. (19)

(4) 文化論的 認識

한편 文化論的 立場에서의 産業革命論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폴라니(Karl Polanyi)의 그것이다. 그는 産業革命의 本質을 기계설비의 사용에 따르는 工場制度의 발달이 市場經濟에의 移行을 결과하였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 市場經濟란 무엇인가. 그에 의하면 ‘市場經濟는 市場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規制되어 방향지워지는 經濟體制’이며 그 속에서 財貨의 生産과 分配는 自己調整의 메카니즘에 맡겨져 있는 經濟이다. (20) 그러나 그는 市場經濟가 본래 商品이 아닌 勞動, 土地 및 貨幣등의 生産要素를 商品으로 擬制해서 市場經濟의

(17) E.J. Hobsbawm, *Industry and Empire from 1750 to the Present Day*, Harmondsworth, 1968, reprinted 1984, p.34: 전철환·장수한 옮김, 『산업과 제국』, 1984.

(18) *Ibid.*, pp. 34-5.

(19) E.J. Hobsbawm, “The British Standard of Living 179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No. 1, August 1957.

(20)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1957: 吉澤英成·野口建彦·長尾史郎·杉村芳美 共譯, 『大轉換—市場社會の形成と崩壊』, 1975, pp. 91-92.

自己調整메카니즘에 맡김으로써 社會를 파괴하였다고 보고 있다.⁽²¹⁾ 즉 그는 이전에는 그 속에 經濟시스템을 포괄하고 있던 社會시스템⁽²²⁾이 機械를 도입한 工場制의 전개를 기적으로 하는 産業革命에 의해서 市場시스템으로 移行함으로써 社會構造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人間社會는 經濟시스템의 附屬物化하고 그것은 人間社會와 자연환경을 파괴로 몰아갔다고⁽²³⁾ 인식하였다. 플라니에게는 産業革命이 결과한 社會的 慘禍는 所得이라든가 人口의 統計로 측정할 수 있는 經濟的 現象이 아니라 주로 文化的 現象이었다. 그리고 退廢의 원인은 經濟的 搾取가 아니라 文化的 環境의 파괴였다.⁽²⁴⁾ 요컨대 플라니는 産業革命에 의해서 市場經濟가 성립하고 그 속에서 본래 商品이 아닌 勞動, 土地, 貨幣가 擬制商品化하여 自己調整메카니즘에 맡겨지게 됨으로써 社會的 文化的 破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市場經濟는 産業革命에 의해서 19세기 유럽社會에 나타난 특수한 存在樣式이며 보다 보편적인 존재양식은 非市場社會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市場經濟의 危害에 대해서 非市場社會의 集合의 原理로서의 보편적이며 일반적 社會는 自己防衛를 위해서 對抗措置를 취하게 되었으며⁽²⁵⁾ 특히 제1차대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對抗措置를 ‘大轉換’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現代는 역으로 市場經濟에서 經濟시스템이 社會시스템에 중속된 본래의 社會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플라니는 經濟的 搾取理論·諸階級間의 經濟的 利害관계에 기초한 歷史理論과 自由主義 經濟理論을 다같이 ‘經濟主義的 偏見’이라고 비판하고⁽²⁶⁾ 社會·文化的 觀點에서 歷史의 전체적·종합적 인식을 시도하고 있다.

윌킨슨(R.G. Wilkinson)은 經濟的 進歩觀에 입각한 理論이 經濟發展에 관해서 갖는 지배적 見解를 비판하고 자신의 독특한 文化論의 接近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적 틀은 기본적으로 어느 社會의 安定된 文化體系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그 社會의 生態의 均衡이며, 후자는 그 社會의 經濟生活에 필요한 資源의 부족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生態系의 균형이 무너지면 文化體系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경우 生態系의 균형은 그 社會가 현존하는 生態環境=資源 關係의 틀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을 넘어서 物質的 欲求가 커질 때에 그에 대한 새로운 適應과정에서 나타난다. 生態系의 균형으로부터의 逸脫은 人口增加에서 나온다. 새로운 적응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중요한 변화요인은 技術進歩이

(21) *Ibid.*, pp. 95-97.

(22) *Ibid.*, p. 91.

(23) *Ibid.*, pp. 100-1.

(24) *Ibid.*, p. 214.

(25) *Ibid.*, pp. 100-1.

(26) *Ibid.*, pp. 219-220.

다. ⁽²⁷⁾

이러한 기본적 인식에서 윌킨슨은 産業革命을 ‘처음에는 農業生産에 대한 人口壓力이 높아짐에 따라서 土地에 기초한 資源을 礦物資源으로 대체한다는 것’ ⁽²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경우 勞動力負擔은 증가하게 된다. 環境利用率이 높아지는 속에서 人間은 生活에 보다 많은 制約을 주는 生産組織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社會의 階級構成도 資源基盤의 변화에 대응한 技術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資源이 稀少해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技術이 高度化해짐에 따라 支配階級の 힘은 커진다. ⁽²⁹⁾ 이러한 관점에서 윌킨슨은 英國의 産業革命을 人口증가에 따른 經濟體系의 확대에 의한 심각한 土地不足・木材飢饉이라고 하는 生態學的 背景에서 木炭의 石炭에의 代替, 石炭需要증대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증기기관, 重量과 부피가 큰 物資의 全國的 輸送의 필요에 따른 交通手段의 變革, 建築業에서의 原材料의 대체, 羊毛의 綿花에의 대체 등 人口증가에 의한 資源不足에의 대응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³⁰⁾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技術進歩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산조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勞動負擔은 증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윌킨슨은 産業革命이 文化的, 社會的, 環境的 條件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³¹⁾

2. 量的・成長論的 認識

(1) 技術論的 認識

産業革命의 技術論的 인식은 ‘古典學說’에 대한 클래팜(J. Clapham)의 강력한 비판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역사발전을 斷絶이라든가 革命으로서가 아니라 연속적 과정 또는 끊임없이 進歩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古典學說’을 부정하고 技術論的 인식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大著⁽³²⁾는 近代英國經濟史 해석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古典的 産業革命 인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여러 産業部門에 걸친 세밀한 數量的 分析을 통해서 이 시기의 變化가 얼마나 점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어느 한 産業도 1830년 이전에 완전한 기술혁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英國

(27) R.G. Wilkinson, *Poverty and Progress: An Ecological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London, 1933; 齊藤修・安元稔・西川俊作 共譯, 『經濟發展の生態學—貧困と進歩』, 1975, p. 21.

(28) *Ibid.*, p. 132.

(29) *Ibid.*, pp. 141-144.

(30) *Ibid.*, pp. 145-172.

(31) *Ibid.*, p. 221.

(32) J.H. Clapham,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The Early Railway Age, 1820~1850*, Cambridge, 1926.

은 낡은 형태의 산업조직과 다양한 종류의 과도적 형태로 중단되고 있다”(33)고 지적함으로써 이 시기의 技術革新의 점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革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革命을 거친 諸產業’(34)이라든가 ‘새로운 또는 革命을 거친 諸業種’(35)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을 同一産業內 또는 諸產業에서의 ‘技術革新’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그가 ‘産業革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古典的 의미의 그것이 아니라 일련의 技術革新의 총칭으로서의 諸産業革命(36) (industrial revolutions)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諸産業革命은 單一産業 內部에 있어서 또는 諸産業間에서 얼마나 큰 時間的 차이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量的으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産業革命의 一回性, 突變性 및 斷絕性을 부정하고 古典學說의 해석을 배척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시기의 經濟發展의 내용을 社會經濟의 구조적 변화보다도 人口증가, 投資率의 증대 技術革新=生産性증대, 國際貿易의 확대 및 經濟的 自由의 확대 등에 의한 經濟規模의 확대 및 所得의 증대라고 하는 經濟의 量的 擴大과정으로 보았다. ‘連續性的 原理’에 입각한 量的 擴大過程이라는 經濟過程의 인식은 그 成果에 대한 樂觀論과 연결된다.(37)

클래팜의 연구를 전기로 해서 産業革命에 관한 연구는 一般論보다는 特殊的·個別的 또는 實證的 연구라는 방향에서 전개되게 되었다. 그 속에서 個別産業, 地域 또는 企業=經營에 관한 상세한 실증적 연구가 진전되었다. 그 속에서 連續性이 강조되어 産業革命의 時期는 앞뒤로 연장되고 그 激變性 및 斷絕性이 부정되고 그의 社會的 結果에 대해서는 數量的 연구에 의해서 클래팜의 樂觀論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 결과 經濟史家들은 ‘産業革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싫어하거나, 비록 그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준비과정을 포함한 점진적·연속적 과정으로 인식함으로써 ‘産業革命’은 별다른 의미 없이 편의상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産業革命’ 개념이 다양화·무개념화되는 속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技術革新 또는 景氣循環으로 인식되어 많은 ‘産業革命’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네프(J.U. Nef)는 본래의 産業革命에 앞서 1540~1640년에 있어서 新工業(製紙, 火藥, 武器 등)의 도입, 舊工業(石炭, 製鐵 등)에서의 技術革新 및 大企業의 보급, 그리고 製鐵部門 이외의 諸部門에서의 에너지源으로서의 木炭의 石炭에 의한 代替를 내용으로 하는 ‘初期

(33) *Ibid.*, p. 143.(34) *Ibid.*, p. 192.(35) *Ibid.*, p. 214.(36) *Ibid.*, p. 205.(37) *Ibid.*, p. 561.

産業革命'(an early industrial revolution)을 인식하였다.⁽³⁸⁾ 그리고 케러스 윌슨(Carus-Wilson)은 13世紀 英國毛織物工業의 縮絨工程에서의 人力에 대신한 水力縮絨方法의 발명·도입에서 '13世紀의 産業革命'⁽³⁹⁾을, 그리고 차일드(Gordon Childe)는 古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後期青銅器時代의 産業革命'⁽⁴⁰⁾을 인식하였다. 한편 企業家의 革新活動을 資本主義經濟發展의 基本적 動向으로 보는 슈페터(Joseph A. Schumpeter)에게는 革新과 그 成果의 흡수기간이 약 60년을 周期로 순환하는 長期波動으로서의 콘드라티에프循環이 바로 産業革命이 었다. 그에 의하면 18세기의 80년대에서 1842년에 이르는 제 1 콘드라티에프循環이 그의 '特殊한 産業革命'이었으며, 蒸氣와 鋼鐵의 時代라고 불리워지는 1842~97년의 제 2 콘드라티에프循環, 그리고 電氣化學 및 自動車工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1898년 이후의 제 3 콘드라티에프循環도 각각 循環적으로 나타난 「産業革命」이었다.⁽⁴¹⁾ 그는 특히 1920년대의 革新을 '20년대의 産業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다.⁽⁴²⁾ 그에게는 「産業革命」은 資本主義 발전과정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의미없는 많은 '産業革命'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콜먼(D.C. Colema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經濟史家들의 著作에는 諸革命이 充만하고 있다. 商業 및 農業(革命)은 하나에 그치지 않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主題의 연구자는 諸産業革命의 연속에 직면하고 있다. 後期青銅器時代, 13세기, 15세기, 1540~1640년의 1세기, 17세기후기, 그리고 古典的 産業革命期를 지나서 19세기 후기와 20세기——이들 전기간에 걸쳐서 英國 한 나라의 經濟發展에서도 諸産業革命이 관찰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⁴³⁾

이러한 배경에서 産業革命은 부분적으로 인식되게 되고 개별적·부분적 연구 성과가 누적됨에 따라 그의 현상은 복잡화하여 그 포괄적·전체적 인식은 점점 곤란하게 되었다. 이

(38) J.U. Nef, *The Rise of the British Coal Industry*, London, 1932, 1, pp.19, 123-4, 165-89; do.,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Large-Scale Industry in Great Britain, 1540-1640", *Economic History Review*, V (1934), in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4.

(39) Carus-Wilson, "An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Thir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I, No. 1, 1941, in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4.

(40) V.G. Childe, "The Birth of Civilisation," *Past and Present*, No. 2, November 1952; do., *Man Makes Himself*, 1956.

(41) Joseph A. Schumpeter,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 Vol. 1, N.Y. and London, 1939, pp.168-170.

(42) *Ibid.*, Vol. II, p.753.

(43) D.C. Coleman, "Industrial Growth and Industrial Revolutions," *Economica*, 1956, in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Volum III, London, 1962, p.224.

러한 곤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産業革命像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제 2 차대전 이후에 에슈톤(T.S. Ashton)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에슈톤은 經濟發展을 連續的 過程으로 보고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에 대해서 樂觀論을 주장하는 정통 클레팜學派에 속하는 학자였다. 따라서 그는 經濟過程에서의 ‘革命’을 부정하고 있으며 ‘産業革命’이라는 용어도 편의상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는 “産業革命이라는 용어는 많은 역사가에 의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또한 日常會話속에 확고한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그에 대체할 용어를 새삼스럽게 제시한다는 것은 術學的이라 할 것이다”⁽⁴⁴⁾라는 이유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經濟過程의 連續觀은 産業革命期를 포함한 18世紀를 다룬 그의 著書의 題目 『英國經濟史—18世紀』⁽⁴⁵⁾ (1955년)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 책의 序文에서 그는 經濟活動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⁴⁶⁾

에슈톤은 産業革命을 技術革新에 따른 産業上의 變化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및 知的 變化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 경우 産業上·經濟上의 變化라는 것은 인클로우저, 都市의 發展과 工場의 보급, 交通機關의 變革, 商業 및 金融制度의 발달 등이었으며, 社會적 變化라는 것은 人口증가와 그 地域的 構成의 變化, 낡은 形態의 숙련의 소멸, 工業中心地의 勞動者의 이동과 그들의 生活水準의 개선이며, 知的 變化라는 것은 革新과 進步의 思想에 의한 전통적 觀念의 타파였다. 에슈톤도 産業革命의 시기를 1760~1830년으로 보고 있으나, 그가 인식하는 經濟的 및 社會的 變化는 기본적으로 量的인 것이며 經濟社會의 基本 구성 또는 社會관계의 變化라고 하는 質的인 것은 아니다. 經濟過程의 連續性을 믿는 에슈톤에게는 産業革命은 기본적으로 量的 擴大과정이었으며 그것이 노동者의 經濟的 地位에 미친 영향도 樂觀的인 것, 밝은 것이었다.⁽⁴⁷⁾ 그는 정통 클레팜學派에 속하면서 産業革命의 무게감화 傾向을 극복하고 그에 새로운 의미·내용을 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 成長論的 認識

經濟成長史學은 經濟成長理論 또는 經濟發展論의 諸概念과 數量的 接近方法을 도입하여 歷史分析을 시도하는 經濟史學의 한 흐름으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대두하여 오늘날에는 歐美經濟史學界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 經濟成長史學은 특히 産業革命 이후 近代經濟의

(44)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London, 1948, p. 2.

(45) T.S. Ashton,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18th Century*, London, 1955.

(46) *Ibid.*, p. v.

(47)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 161.

역사적 분석에서 두드러진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이 시기에 이르러 數量的分析이 가능한 史料가 불충분하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經濟成長史學의 現實的 問題意識이 이 시기에 학문적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現實的 問題意識이라는 것은 先進工業國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실현과 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 내지 工業化의 달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의식은 成長史學者의 産業革命研究에서 강조되고 있다. 딘(Phyllis Deane)은 그의 著書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요한 社會로 가는 길이 産業革命이란 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오늘날 經濟發展論의 하나의 公理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사람에 따라서는 自己維持的이라고도 부르겠지만——經濟成長過程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에 의해서 各世代는 (전쟁이나 天災地變을 예외로 한다면) 先祖들보다 높은 生活水準과 消費水準의 享有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經濟成長은 工業化를 성취하는 民族에게만 개방되었다. 20세기 중엽의 先進國 및 이미 開發된 나라의 國民과 後進國 및 低開發國의 國民의 生活水準에서 보이는 현격한 격차는 본질적으로 前者는 工業化하였으나 後者는 工業化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⁴⁸⁾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經濟成長史學에서는 近代的 成長=持續的 成長을 가능케 한 역사적 轉換期로서의 工業化 내지 産業革命에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産業革命研究에 선구적 역할을 한 학자로서 우리는 로스토우(W.W. Rostow)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로스토우는 그의 著書⁽⁴⁹⁾에서 經濟成長의 5段階를 설정하였다.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離陸’(take-off)의 단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前近代的 成長에서 近代的=持續的 成長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經濟史學에서의 ‘産業革命’이기 때문이다. 英國의 離陸期를 1783~1802년으로 설정한 로스토우는 ‘離陸’의 조건으로 (1) 純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純投資比率의 5%에서 10%에의 上昇, (2) 높은 成長率을 가진 하나 또는 몇개의 製造業部門이 발전한다는 것, (3) 近代的 成長에 대응한 政治的, 社會的 및 制度的 장치의 출현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⁵⁰⁾

로스토우의 ‘離陸’假說은 그후의 연구를 크게 자극하였지만 특히 첫째의 조건과 관련해서 크게 비판되었다. 純投資比率의 급속한 상승은 의식적으로 工業化가 유도된 後發國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英國과 같이 그것이 自生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48)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p. 1.

(49)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1960.

(50) *Ibid.*, p. 38-39.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바쿠크(H.J. Habakkuk)와 딘은 “그러한 큰 변화가 18세기의 최후의 20년동안에 英國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믿기는 어렵다……이 시기에 관한 數量的 資料에 의해서는 그러한 큰 변혁이 확인되어 있지 않다”⁽⁵¹⁾고 지적하고 있다. 딘은 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不幸하게도 착실한 成長率이 그후 규칙적으로 持續될 수 있는 방식으로” 經濟의 기본적 구조와 社會의 社會的·政治的 구조를 變革하는 諸變化가 10년 또는 20년 동안에 일어난다는 로스토우의 見解는 거의 現實世界와 관계 없음이 분명하다. 工業化가 成功한 어느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 동안에 離陸의 객관적 그리고 計測可能한 諸特徵이……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년 또는 30년의 독특한 시기를 발견할 수 없다.”⁽⁵²⁾

로스토우의 ‘離陸’ 假說이 實證的으로는 비판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近代的=持續的 成長을 일으키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하는 離陸概念의 기본관념이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經濟成長史學에서는 產業革命은 經濟成長내지 工業化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아트웰(R.M. Hartwell)은 產業革命을 ‘이전과 비교해서 革命的인 率에서의 總產出高 및 1人當 產出高의 成長率의 持續的 증대’⁽⁵³⁾로, 톰프슨(Allan Thompson)은 그것을 ‘經濟構造와 社會의 性格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이르기엔 데 충분한 급속한 經濟成長의 시기’⁽⁵⁴⁾로 정의하고 있다. ‘持續的’ 또는 ‘급속한’ 成長에 의한 經濟的 量的 擴大過程에서 勞動者의 所得도 증가하고 그들의 經濟的 地位도 개선되었다. 產業革命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은 成長史學에서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產業革命의 時期設定에 대해서는 成長史學者들 사이에 異見이 있다. 成長史學에서는 歷史를 기본적으로 연속적·量的 확대과정으로 인식하는 만큼 經濟成長으로서의 產業革命도 장기에 걸친 연속적 과정으로 인식된다. 그 경우 장기에 걸친 經濟成長過程에서 成長이 加速化된 시점은 轉換點(turning point)=產業革命의 始期로 인식된다. 딘 및 콜(W.A. Cole)은 英國의 역사적 장기에 걸친 經濟成長에 관한 기념비적 연구에서 實質國民產出高가 18세기 최초의 40년 동안 年 0.3%로 정체하다가 1745~85년에 年 0.9%로 그리고 18세기의 최후의 20년 동안은 年 1.8%로 각각 상승하였고 그에 대응한 1人當 產生量의 成長率은

(51) H.J. Habakkuk and Phyllis Deane, “The Take-off in Britain,” in W.W. Rostow (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London, 1963, p. 75.

(52) Phyllis Dean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in Carlo M. Cipolla (ed.), *The Fontana Economic History of Europe: The Emergence of Industrial Societies*, Part one, Fontana, 1973, p. 164.

(53) R.M. Hartwell (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London, 1967, p. 8.

(54) Allan Thompson, *The Dyna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1973, p. 30.

각각 0.3%, 0.3% 그리고 0.9% 였다고 推計하여⁽⁵⁵⁾ 1740년대를 持續的 經濟成長의 時期에
로의 轉換點으로 인식하였다.⁽⁵⁶⁾ 이거한 근거에서 딘은 英國의 産業革命을 대체적으로 18
세기중엽—19세기 중엽의 1세기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 플린(M. Flinn)은 딘 및 콜의 統計的 接近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다
음과 같은 理由에서 그들의 1740년대 전환點說을 비판하고 있다. 즉 첫째는 18세기에 관한
한 統計資料가 不充分하며 따라서 統計資料에 기초한 결론은 非數量的 資料에 의해서 뒷바
침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數量化하다 보면 數量化할 수 없는 要因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이 統計이외로는 중요하지 않은 時期를 전환點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플린은
1745년 이후의 產出量증대는 生産手段의 變革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革命的인 變
革에 뒷받침되어 成長이 加速화된 1780년을 轉換點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⁷⁾
또한 하트웰은 ‘工業生産에서의 급속한 上昇運動이 시작된 1780년에서 經濟의 구조적 큰
변화의 최초의 時期가 끝나는 1850년’⁽⁵⁸⁾을 英國産業革命의 時期로 설정하고 工業產出量의
증가率을 기준으로 1780년을 轉換點으로 보고 있다.⁽⁵⁹⁾

한편 18세기에 있어서의 轉換點을 인정하지 않는 見解도 있다. 화이트헤드(D. White-
head)는 轉換點이라는 관념은 로스토우에 의해서 ‘離陸’ 假說이라는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그것은 英國經濟의 自生的 生成을 低開發國의 유도된 成長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데에서 나
타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英國과 같이 漸進的인 成長의 경우에는 轉換點이 없고
따라서 그의 先行條件이 없으며 經濟成長은 장기간 계속되고 누적된 成長에 의해서 조건지
워진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⁰⁾ 그는 특히 딘 및 콜의 1740년대 轉換點說을 검토하여 그들이
그 이전의 시기를 너무 정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1730년대 및 40년대의 農
業不況說을 비판하여 18세기 전반기에는 農業은 工業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1740년대의 轉換點說을 부정하고 18세기에 있어서의 연
속적인 經濟成長을 강조하였다.⁽⁶¹⁾ 한편 크래프츠(N.F.R. Crafts)는 딘 및 콜의 推計이후의

(55) Phyllis Deane and W.A.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1688~1959, Trends and Structure*, Cambridge, 1962, p. 280.

(56) 한편 1745~85년의 1人當 產出量의 成長率이 낮은 것(0.3%)은 人口증가에 의한 것이다. Ibid., p. 285.

(56) Deane, *op. cit.*, p. 4.

(57) M.W. Flinn, *Origi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Harlow, 1966, reprinted 1980, pp.12-14.

(58) R.M. Hartwell,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London, 1971, p. 111.

(59) Hartwell (ed.), *op. cit.*, pp.12, 28.

(60) D. Whitehead, "The Englis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Example of Growth," in R.M. Hartwell (ed.), *The Industrial Revolution*, Oxford, 1970, pp. 7-9.

(61) *Ibid.*, pp. 12-22.

연구성과를 전제로 1700년~1831년의 工業產出量의 증가와 1760년 이후의 農業產出量 증가에 관한 새로운 推計를 하고 古典的 工業化時期的 經濟成長을 고찰한 최근의 論文⁽⁶²⁾에서 1780~1831년의 成長은 생각되어 온 것 보다 훨씬 느렸으며 英國經濟는 1820년대까지 年 2%라는 持續的 成長率(sustained rate of growth)에 도달하지 않았고 18세기 最後의 20년 동안에 ‘離陸’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³⁾ 그는 18세기 말의 工業生産量 증대의 큰 加速化가 그 이전의 長期에 걸친 工業 및 農業生産의 扎实的 증대에 의해서 先行되었음을 강조하고 經濟의 전환이 새로운 型의 에너지 및 資本裝備의 적용의 결과로 인식된다면, 주요한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780년까지 시작은 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⁴⁾

이와 같이 學者들 사이에 異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英國經濟에서의 轉換點을 1780년으로 보는 데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톰프슨(Allan Thompson)도 英國産業革命이 1780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일치된 見解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1740년대의 工業成長은 生産性的 상승이 수반되지 않았고 經濟의 기본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데 대해서, 1780년 이후의 工業成長은 生産性的 명확한 상승이 있었고 社會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⁵⁾ 이러한 時期設定은 마르크스學派에 속하는 홉스보움에 의해서도 채택되고 있다.⁽⁶⁶⁾ 한편 최근의 成長史學者에 의한 研究成果에서도 産業革命期를 1780~186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⁶⁷⁾ 産業革命期를 1780~1850년으로 보는 견해는 오늘날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經濟成長史學者들에 의해서 産業革命의 定義와 時期設定의 문제는 理論的 실증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인식되게 되었다. 成長史學의 理論的·數量的 接近이 社會經濟史學의 전통적 방법에 비해서 産業革命의 諸問題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상호관련성하에서 보다 치밀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분야의 연구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이 ‘現代의 問題意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실천적 의의도 높히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역사상의 커다란 變革期로서의 産業革命을 經

(62) N.F.R. Crafts, "British Economic Growth, 1700~1831: A Review of the Evidenc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Vol. XXXVI, No. 2, May 1983.

(63) *Ibid.*, p. 199.

(64) N.C.R. Crafts, "The Eighteenth Century: A Survey," in R. Floud and D. McCloskey (ed.),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 1: 1700~18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 5.

(65) Thompson, *op. cit.*, pp. 30-32.

(66) Hobsbawm, *Industry and Empire*, p. 56.

(67) Floud and McCloskey (ed.), *op. cit.*, p. 103.

濟成長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量的 측면에서 인식함으로써 經濟社會構成의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 質的 측면에서의 인식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經濟成長을 통한 構造的·質的 變化가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前者는 후자를 결과하게 되고 또한 후자는 전자의 지속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 경우의 구조적, 질적 변화는 産業構造, 金融制度, 企業組織, 政策基調(自由放任) 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經濟社會構成의 근본적 변화와 그에 따른 社會的諸관계 및 生活方式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工業化가 이미 이루어지고 持續的 成長이 定常的 狀態인 경우와는 달리 産業革命은 技術革新을 기층으로 한 經濟的 量的擴大=經濟成長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構成의 原理와 구조 그리고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플린은 成長率의 증가가 相異한 生活樣式間的 밸런스를 실질적으로 바꾼 生産 및 社會組織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지속되었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都市工業生活樣式이 처음에는 史家들로 하여금 産業革命研究로 이끌었으나 오늘날에는 統計的 研究만 강조되면서 간과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都市勞動者의 生活環境 및 조건 그리고 그들의 勞動條件, 勞動組合運動, 反機械運動은 經濟的 變化에 관한 統計的 說明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그것들도 産業革命이라고 하는 一大 社會的 轉換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産業革命이 단순한 投資 및 國民生産의 成長率의 加速化가 아니라 勞動者 및 雇傭主 그리고 勞動者相互間的 社會관계의 패턴과 人間의 態度 즉 社會文化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한 보다 깊은 運動임을 강조하고 있다.⁽⁶⁸⁾

란데스(D. Landes)도 産業革命의 本質을 기술혁신을 기층으로 하는 工業化로 인식하면서 그와 함께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및 文化的 諸變化의 大複合體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는 産業革命에 따른 새로운 生産組織으로서의 工場制의 전개 속에서 工場프롤레타리아트와 産業부르조아지의 成長, 그속에서의 社會관계의 변화, 政治權力構造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産業革命이 보다 富裕하고 複合的인 社會를 창출하였다고 보고 그것은 社會諸階級을 소수의 부르조아지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로 兩極化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계급으로 自由專門職, 事務職, 技能職, 技師등 다양한 中間的 부르조아지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⁶⁹⁾

(68) Flinn, *op. cit.*, pp. 15-16.

(69) David S.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Techn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reprinted 1977, pp. 1-9.

한편 퍼킨은 産業革命이 ‘産業革命 이상의 것(The more than industrial revolution)’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産業革命은 商業擴張이상의 것이었고 諸産業의 일련의 기술변화 이상의 것이었으며 심지어 전반적 經濟成長의 加速化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人間의 生活手段에의 接近方式, 人間의 生物學的 환경에 대한 統制力 그리고 自然의 暴惡性과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人間의 能力에 있어서의 革命이었다. 産業革命은 物質의 레벨에서는 人間의 工業, 農業 및 人口學的 生産性的 상승으로 기술될 수 있다. [한편 그것은] 社會 그자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였고 의미하였다. 즉 人口의 규모와 分布, 그의 社會的 構造와 組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지지한 政治的 및 行政的 上部 構造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요컨대 그것은 하나의 社會革命이었다. 즉 社會的 諸結果와 함께 社會的 諸原因을 가진 社會組織에서의 革命이었다.”⁽⁷⁰⁾

플린과 란데스 그리고 퍼킨의 관점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産業革命을 기본적으로 經濟成長이라고 하는 量的 측면에서 인식하면서 동시에 經濟社會的 構造的·質的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成長 第一主義가 反省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産業革命의 量的 인식과 함께 構造的 質的 인식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토인비어리의 構造的·質的 인식 방법은 새로운 각도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産業革命의 起源

産業革命은 왜 18세기 말엽의 英國에서 일어났는가? 인류의 오랜 歷史過程에서 18세기 말엽이라는 時期에 다른 나라가 아닌 英國에서 産業革命이 처음 일어나게 된 原因은 무엇인가? 특히 최초의 産業革命은 突發的, 偶發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諸條件의 成熟위에서 自生的으로 일어난 것인만큼 先行諸條件의 形成過程에 관한 연구는 産業革命研究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은 研究者에 의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사실 産業革命을 다룬 대부분의 論著에서는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그리고 독립적으로든 부수적으로든 先行諸條件에 관해서 논급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先行한 시기에 있어서의 工業發展, 農業革命 및 商業革命 그리고 資本蓄積, 技術革新, 人口增加, 賦存資源, 自由放任, 企業家活動, 市場擴大 등의 제 측면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70) Harold Perkin,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1780~1880*, London, 1969, reprinted 1981, pp. 3-4.

특히 産業革命의 起源의 문제는 1959년에 런던에서 35名の 歷史學者, 經濟學者 및 人口學者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學會에서 ‘産業革命의 起源에 관한 약간의 問題’와 ‘産業革命은 왜 大陸에서가 아니라 英國에서 처음 일어났는가’⁽⁷¹⁾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된 이래 産業革命研究의 주요대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 學會에서 콜먼(D. C. Coleman)은 17세기 말 이후에 나타난 工業化를 지향한 變化의 다섯가지 기본적 徵兆로서 (1) 海外貿易의 擴大, (2) 工業活動의 활발화, (3) 商業 및 金融制度의 발달, (4) 科學과 技術의 발달, (5) 物價下落과 生産擴大를 지적하였다. 그와 함께 政治的 産業革命의 起源의 문제로서 政治的(R. Barnes) 및 社會的(L. Stone, H.J. Perkin) 構造, 食料品生産 및 供給擴大(F.J. Fisher), 人口增加의 經濟的 意義(D.E.C. Eversley, J. Saville, J. Robinson, K. Berrill, J. Taylor, E.J. Hobsbawm 등), 原料供給과 技術革新(F.A. Wrigley), 資本蓄積(Perkin), 需要擴大(Taylor, W. Minchinton, Berrill, W.A. Cole) 등의 諸問題가 각각도로 논의되었다. 이 논의는 産業革命의 起源에 관한 명확한 結論을 도출한다는 것 보다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研究方向을 시사한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학자들이 인식한 産業革命의 기원에 관한 문제의 소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産業革命은 기본적으로 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의 과정인 만큼 그 起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經濟的 측면에 관한 고찰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경우 市場의 擴大, 資本蓄積, 技術革新, 人口增加 등이 기본적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 측면은 經濟外的 諸測面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産業革命 이전의 前資本主義社會에서는 經濟는 社會·文化一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後者에 대한 종속적인 價値라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역사상의 一大 轉換期로서의 産業革命의 起源으로서는 經濟的 要因과 함께 社會·文化的 要因도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産業革命을 經濟的 量的 成長過程만이 아니라 社會構成과 그 原理의 변화과정으로 인식한다면 經濟外的 要因의 인식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經濟外的 要因으로는 政治的·社會的·文化的·思想的·知的 要因이 포함된다. 사실 이들 諸要因은 産業革命의 기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研究를 망라하여 이 문제를 고찰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일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위에 든 經濟的 要因과 함께 經濟外的 要因으로는 社會的·思想的 및 知的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經濟的 條件은 需要와 供給의 확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需要측면으로는 國內 및 外國市

(71) Conference Report, "The Origi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ast & Present*, No. 17, April 1960.

場의 확대를, 그리고 供給측면으로는 資本蓄積 및 技術革新의 진진과 勞動力供給의 확대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供給측면에서는 資本蓄積과 技術革新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人口增加는 需要 및 供給의 확대조건과 관계되는 經濟的 條件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이므로 따로 고찰하였다.

1. 經濟的 條件

(1) 需要擴大

經濟成長에서 需要擴大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찌기 스미드(A. Smith)에 의해서 강조되었다. 그는 勞動生産性 증대의 큰 原因인 分業은 市場의 크기에 의해서 制約된다고 지적하고 需要擴大야말로 經濟成長의 중요한 要因이라고 인식하였다.⁽⁷²⁾ 그러나 그후 古典學派經濟學에서는 供給要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需要要因에 대해서는 二次的인 중요성이 부여됨에 불과하게 되었다. 經濟史學에서도 需要要因은 오랫동안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라스(N.S.B. Gras)는 産業資本主義時代는 일반적으로 超過需要가 존재한 時代로서 당면 문제는 供給擴大의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³⁾ 그 경우 超過需要의 존재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與件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資本蓄積이라든가 技術革新등 供給要因에 관한 인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需要擴大要因의 중요성이 간과된 것은 아니며 그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시되어 그에 관한 理論的 實證的 研究가 진진되게 된 것은 第2次大戰이후 특히 經濟成長史學이 발달하면서였다.

需要擴大要因으로 國內市場의 안정적 擴大는 근래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⁷⁴⁾ 國內市場의 擴大要因으로는 전통적으로 國內關稅制度의 결여, 交通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 有料道路 및 運河 등 交通手段의 개선, 商業組織의 발달 등이 강조되어 왔다. 그와 함께 實質所得의 상승을 수반한 人口增加가 강조되고 있다.

産業革命期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시기에 人口增加의 추세가 加速化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⁷⁵⁾ 그러면 이시기의 實質賃金の 추세는 어떠하였는가? 18

(72)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Edwin Canan, Modern Library Edition, 1937, p. 17.

(73) N.S.B. Gras, *Business and Capitalism: An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N.Y., 1939, pp. 185-195 참조.

(74)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p. 49; Hartwell (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75; M.W. Flinn, *Origi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62.

(75) 本稿, p. 488 참조.

세기의 實質賃金에 관해서는 펠프스 브라운 및 홉킨스(Phelps Brown & Hopkins)의指數⁽⁷⁶⁾와 길보이(E.W. Gilboy)의指數⁽⁷⁷⁾가 있다. 前者는 잉글랜드 南部의 建築工의 賃金率指數에 消費財構成單位의 價格을 관련시킨 것이며 後者는 여러 지방의 여러 종류의 勞働者 및 職人의 賃金에 物價指數를 연관시킨 것이다. 後者가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指數이다. 펠프스 브라운 및 홉킨스의指數는 18세기 제2·4半期の 實質賃金의 조심스런 상승을 나타내고 18세기의 최후의 40년間은 두드러진 安定을 나타내고 있다. 길보이의指數도 잉글랜드 南部에 관해서는 거의 같고 工業化가 進展되는 北部에서의 實質賃金의 상승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증가하는 人口의 實質所得의 상승은 國內需要擴大의 기본조건이 되었다.

18세기 전반기의 實質賃金의 상승은 주로 農業改良과 장기간의 豊作에 의한 穀物價格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며⁽⁷⁸⁾ 후반기의 그것은 經濟成長에 따른 雇傭機會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전반기의 實質賃金의 상승이 工業製品의 소비증대로 나타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다. 딘과 쿨은 18세기전반기의 所得增大가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增大보다도 餘暇라든가 怠慢의 증대라고하는 前近代의 消費패턴으로 귀결되었다고 보는데 대해서⁽⁷⁹⁾ 존(A.H. John)은 그것이 公業제품에 대한 需要擴大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⁰⁾ 그러나 딘은 후에 이시기의 低穀價가 農業관계자의 所得을 감소시키기는 하였으나 勞働者, 消費者 및 工業者에게는 유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⁸¹⁾ 길보이(E.W. Gilboy)도 實質所得의 상승에 따른 대중의 구매력 증대는 새로운 消費를 창출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면서 전체로서의 需要擴大를 결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⁸²⁾

하바쿠크(H.J. Habakkuk)는 18세기 英國의 國內市場의 特質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英國에서 1人當 平均所得은 유럽 大陸諸國에서보다 높았으며 工業製品을 消費할 수 있는 生産水準 이상의 여유를 가진 다수의 人口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英國의 消費大衆은 증대한 所得을 퇴장하거나 餘暇에 支出하기보다 財貨購入에 支出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英國市場의 특질은 일차적으로는 中産層所得의 중요성이 크다는 데에 기

(76) E.H. Phelps Brown and S.V. Hopkins, "Seven Centuries of the Prices of Consumables, Compared With Builders' Wage-rates," *Economica*, New Series, 23, 1956.

(77) E.W. Gilboy, *Wage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

(78) Hartwell, (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87.

(79) Deane and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p. 93.

(80) A.H. John, "Aspects of English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Economica*, New Series, Vol. XXVIII, No. 110, 1961 참조.

(81)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p. 48.

(82) E.W. Gilboy, "Demand as a Factor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Hartwell (ed.), op. cit., pp. 121-138. 참조.

인 한다. 그레고리 킹(Gregory King)에 의하면 17세기 말엽의 英國社會는 國民所得의 악반정도가 中産層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大陸諸國의 社會와 대조적이었다. 세계로 이러한 대규모 中産層市場은 高級商品이 아니라 진실한 실질적 商品 즉 機械生産에 적합한 商品의 市場이었다.⁽⁸³⁾ 한편 란데스(David S. Landes)는 18세기 英國의 國內市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交通手段의 개선, 人口增加, 높고上昇하는 平均所得, 진실하고 표준화되고 適正價格商品에 유리한 購買패턴, 그리고 방해받지 않은 商業企業의 결과로서 工業製品에 대한 國內市場은 成長하고 있었다.”⁽⁸⁴⁾ 18세기에 國內市場은 확대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안정적인 진실한 市場이었다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國內市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外國市場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産業革命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는 外國市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⁸⁵⁾ 오늘날에도 그의 중요성은 결코 低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윌슨(Charles Wilson)은 1660~1760년의 時期에 商業企業은 낡은 慣習的 農業의 면모를 변화시켰으며 이 시기의 動的 要素는 商業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⁸⁶⁾ 한편 흄스보움은 國內市場의 의의를 “國內市場은 (産業革命을 위한-引用者) 點火裝置를 제공하지는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燃消하게 할 燃料과 충분한 통풍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면서 外國市場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國內需要는 증가하였다—그러나 外國需要는 몇배로 증가하였다. 만약 點火裝置가 필요하였다면 그것은 外國需要로부터 나타났다.”⁽⁸⁷⁾

英國은 重商主義的 對外膨脹경쟁에서 프랑스와 和蘭을 누르고 패권을 차지하였다. 18세기 초의 英國은 全地球의인 범위에서의 貿易海運國이었으며 植民帝國이었다. 18세기 전반기에 英國은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世界的인 규모로 多角的인 貿易을 전개하고 있었다.⁽⁸⁸⁾ 런던에는 정교한 交易 및 金融組織과 制度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활발한 商人活動이 展開되고 있었다.

데이비스(R. Davis)는 “1760년 이후의 1世紀間의 눈부신 經濟的 諸變化가 거의 産業革命

(83) H.J. Habakkuk, “The Historical Experience on the Basic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in Barry E. Supple (ed.), *The Experience of Economic Growth: Case Studies in Economic History*, N.Y. 1963, p. 115.

(84)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 52.

(85) W. Cunningham, *The Growths of English Industry and Commerce in Modern Times*, Vol. III, *Laissez Faire*, Cambridge, 1882, p. 610; Mantoux, op. cit., ch. 2; Hammonds, op. cit., p. 67 참조.

(86) Charles Wilson, *England's Apprenticeship, 1603~1763*, London, 1965, p. x.

(87) E.J. Hobsbawm, *Industry and Empire*, p. 48.

(88)拙著, 『英國産業革命研究』, 1977, p. 210.

(89) R. Davis, *A Commercial Revolution*, London, 1967, p. 3.

과의 연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1660년 이후 1世紀間에 일어난 經濟的 變化는 貿易과 연결되고 있었다”(89)고 지적하고 이 시기의 英國貿易의 발전을 英國의 ‘商業革命’으로 인식하고 있다. 英國의 商業革命은 貿易規模의 두드러진 擴大와 貿易의 商品 및 地域別 構成의 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1700~1774년에 英國輸出(再輸出 포함)은 642만 파운드에서 1,567만파운드로 그리고 輸入은 585만 파운드에서 1,274만파운드로 증가하였다. 再輸出을 포함하지 않은 國產品輸出은 같은 기간에 약 440만 파운드에서 약 985만 파운드로 증가하였다.(90) 18세기를 통해서 英國工業製品의 3분의 1은 수출되었으며 18세기 초에도 英國國產品輸出의 85%는 工業製品이었다.(91) 貿易成長속에서 貿易의 商品 및 地域別 構成은 크게 변화하였다. 毛織物輸出은 1700년에도 國產品輸出의 大宗(80%)을 이루고 있었지만 유럽大陸諸國에서의 毛織物工業의 成長과 保護관세로 말미암아 그 成長추세는 약화되었다. 毛織物輸出이 英國國產品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774년에는 42%로 떨어졌다. 한편 17세기 후반기에 英國貿易확대에 기여한 것은 植民地商品(설탕, 담배, 印度産織物 등)의 再輸出이었다. 그러나 再輸出의 成長率도 18세기 초에는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그후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英國毛織物의 輸出市場은 주로 유럽대륙이었으며 再輸出品은 전적으로 그곳으로 수출되었다. 따라서 이들 商品輸出의 成長率둔화는 英國輸出市場으로서의 유럽大陸市場의 지위의 저하를 의미하였다. 反面에 英國의 植民地貿易은 成長하였다.(92) 1750~1798년에 유럽 大陸 市場의 비중은 77%에서 30%로 크게 떨어진 데 대해서 北美은 11%에서 32%로 西印度諸島는 5%에서 25%로 그리고 東印度諸島 및 아프리카는 7%에서 13%로 각각 그 비중을 증대시켰다.(93) 특히 1750년대와 60년대의 英國輸出의 주된 動的 要素는 植民地貿易이었다. 植民地貿易의 중요성은 그 量的 成長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毛織物이외의 公業제품을 대량 輸出할 수 있는 가능성을 英國工業에 제공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植民地는 각종 鐵製品, 亞麻 및 기타 잡다한 工業製品에 대한 확대하는 市場을 제공하였다.(94) 데이비스는 植民地市場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8세기 제2·4분기부터의 英國의 工業化過程은 상당한 정도까

(90) R. Davis, “English Foreign Trade, 1700~1774,”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Vol. XV, No. 2, December 1962, p. 302; Deane and Cole, op. cit., p. 48. 1660~1700년의 英國貿易에 관해서는 R. Davis, “English Foreign Trade, 1660~1700,”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Vol. VII, No. 2, December 1954, pp. 150-166. 데이비스의 이들 논문은 W.E. Minchinton (ed.), *The Growth of English Overseas Trade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London, 1969에 수록되어 있음.)

(91) Deane and Cole, *Ibid.*, p. 42.

(92) Davis, “English Foreign Trade, 1700~1774,” pp. 286-290, 293-294,

(93) Deane and Cole, *Ibid.*, p. 86; Deane, op. cit., p. 56.

(94) Davis, op. cit., pp. 290, 295.

지 도끼, 銃砲, 물통, 馬車, 時計, 안장, 손수건, 단추, 끈 및 다른 많은 종류의 商品에 대한 植民地需要에의 反應이었다. ……植民地需要는 증대하는 國內需要에 대한 중요한 보충이 되었다.”⁽⁹⁵⁾

민친턴(W.E. Minchinton)은 英國貿易이 經濟發展에 대해서 갖는 역할을 英國産業 특히 毛織物, 金屬製品 및 穀物등 주요 輸出品 生産部門의 成長, 原料供給源의 확대, 金融力의 강화 및 金融기관 의 발달, 所得效果로서의 商工業部門에서의 고용확대 및 中産階級의 富의 증대와 그에 따른 總需要증대, 港口都市의 발달 그리고 이용될 수 있는 商品범위의 확대를 통한 消費에의 영향 등의 제 측면에서 분석하고⁽⁹⁶⁾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外國貿易은 다른 것들 가운데에서도 生産諸要素의 공급, 英國工業에 대한 需要, 工業의 立地와 金融, 都市의 발달에 미친 그의 效果와 그의 所得效果에 의해서 英國으로 하여금 18세기에 보다 급속한 經濟成長의 길을 떠나게 한 諸要因의 混合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필요한 기여를 하였다. 더구나 1600년에서 1775년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外國貿易은 經濟發展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 英國史의 다른 어느 時期에서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⁹⁷⁾

英國産業革命의 기원으로서의 需要擴大에 있어서 國內市場의 확대와 함께 外國市場확대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植民地市場의 의의도 새로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産業革命의 전개 과정에서 外國市場은 더욱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2) 資本蓄積

스미드는 일찌기 國富는 生産의 勞働者數를 증가시키거나 生産手段의 도입, 개량에 의해서 노동자의 生産力을 증가시킴으로써 증대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어느 경우도 추가적 資本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資本蓄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⁹⁸⁾ 이후 經濟發展의 요인으로서의 資本蓄積의 중요성은 많은 經濟學者와 經濟史家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 애슈튼은 産業革命의 原因으로서 土地, 勞動, 資本등 生産要素의 供給增加, 技術革新, 社會的 및 觀念上의 諸變化를 들면서도 産業革命의 “단 하나의 理由를 찾는다면——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나——利子率의 저하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⁹⁹⁾고 주장함으로써 資本蓄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루이스(A. Lewis)는 産業革命의 조건을 年純投資率이 5% 또는 그 이하에서 12%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¹⁰⁰⁾ 로스토우는

(95) *Ibid.*, p. 290.

(96) Minchinton, (ed.), *op. cit.*, pp. 40-51.

(97) *Ibid.*, p. 52.

(98) Smith, *op. cit.*, p. 325.

(99)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 11.

(100) A.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1955, p. 208.

離陸(take-off)의 조건으로 生産的 投資率이 國民所得의 5% 또는 그 이하에서 10%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¹⁰¹⁾ 어느 경우에도 産業革命의 原因으로 資本蓄積을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産業革命과 관련해서 資本蓄積에 관한 研究는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本源的 蓄積을 둘러싼 오랜 研究史도 資本主義成立의 기본 문제이며 産業革命의 기본 전제를 구명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전개된 것이다.

英國은 産業革命에 앞서서 이미 資本蓄積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重商主義時代의 商業發展에 따르는 商業資本의 蓄積, 인클로우저와 改良農業에 따르는 地主·農業資本의 축적 그리고 오랜 工業成長에 따르는 工業資本의 축적이 진전되었다. 그러면 産業革命의 기원으로 이들 資本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¹⁰²⁾

國內商業 및 外國貿易이 成長하는 과정에서 英國에는 막대한 商業資本이 축적되었다. 이렇게 해서 축적된 商業資本의 일부가 工業으로 投資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브리스톨(Bristol) 및 런던 商人은 웨일즈南部의 鐵工業의 成立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¹⁰³⁾ 그러나 餘他工業에서는 商業資本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윌리엄스(Eric Williams)는 植民地 貿易에서 축적한 막대한 商業資本이 産業革命의 資金源泉이 되었으며 따라서 産業革命은 植民地착취와 奴隸貿易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¹⁰⁴⁾ 그리고 워즈워드(A.P. Wordsworth)도 리버풀이 랭카셔를 肥沃하게 하였으며 랭카셔의 資本主義的 企業은 奴隸貿易과 植民地產品으로 우리난 利潤으로 창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⁰⁵⁾ 植民地貿易의 成長이 外國市場 확대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産業革命의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¹⁰⁶⁾ 그러나 植民地貿易을 통해서 축적된 商業資本이 産業革命初期의 産業資本의 源泉이 되었다는 주장은 주목될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實證의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貿易을 통해서 축적된 商業資本은 工業資本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土地購入이라든가 公債購入등으로 流入되는 ‘前期의’ 性格의 것이었다.

大土地所有·資本主義的 大農場經營이 진전되고 인클로우저 및 改良農法의 도입이 진전되는 속에서 地代가 上昇하고 穀物法에 의해서 農業이 保護되면서 地主資本·農業資本의

(101)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p. 39.

(102) Ashton, *op. cit.*, p. 94.

(103) François Crouzet, "Capital Formation in Great Britai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 Crouzet (ed.), *Capital Format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1972, p. 173.

(104) Eric Williams, *Capitalism and Slavery*, London, 1944, p. 52.

(105) A.P. Wadsworth and J. de Lacy Mann, *The Cotton Trade and Industrial Lancashire, 1600 ~1780*,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31, pp. 212-224.

(106) 本稿, pp. 476-7 참조.

축적도 크게 진전되었다. 地主資本은 所有土地와의 관련에서 石炭 및 鑛山 그리고 冶金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工業資本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地主資本은 주로 農業, 有料道路 및 運河株 그리고 政府公債에 투자되었다. 地主資本은 工業에 투자되기보다도 農業이라든가 社會間接資本으로 투자됨으로써 産業革命의 진제조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産業革命期の 産業資本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것은 産業資本 그 자체였다.⁽¹⁰⁷⁾ 産業革命에 先行한 시기에 英國工業은 오랜 成長過程을 거쳤다. 16세기 이래 毛織物工業은 農村工業으로 광범히 영위되어 ‘國民的 産業’이 되고 있었다. 石炭産業이라든가 冶金工業에서는 1540~1640년에 네프(J.U. Nef)가 ‘初期産業革命’이라고 부른 발전이 있었으며 釀造, 유리, 製鹽, 비누, 明礬, 火藥 등 諸工業도 장비와 製法の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하였다. 英國은 또한 유럽의 주요한 金屬製品의 生産國이었다. 셰필드(Sheffield)는 刃物과 기타 鋼製品生産의 중심지가 되고 버밍검(Birmingham)은 각종 小型金屬製品生産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 工業發展에 대응해서 生産組織으로서는 家內工業(domestic system)과 함께 工場制手工業(manufacture)이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속에서 무수한 手工業生産者(artisans) 또는 小工業者들(manufacturers)이 成長하고 있었다. 이들 小生産者들의 蓄積資本이 産業革命初期의 産業資本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

産業革命初期에 小生産者들은 그들 自身の 축적자금과 때로는 가족 및 親知의 資金을 추가하여 企業을 설립하였다. 技術이 비교적 단순하고 技術革新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動力은 人力으로 充用할 수 있었으며 工場建物は 賃借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企業의 資本構成에서 固定資本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낮았다. 固定資本은 資本化가 진전된 섬유工業에서도 總資本의 7분의 1~8분의 1에 불과하였고 資本化가 가장 진전된 鐵工業에서도 2분의 1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¹⁰⁸⁾ 특히 섬유工業에서는 小資本으로 企業을 시작할 수 있었다. 즉 工場生産에의 ‘進入문턱’(threshold of entry)이 낮은 小生産者로서 축적한 資金을 가지고 企業을 설립할 수 있었다. 鐵工業에서도 약간의 大企業은 手工業生産者의 資本으로 설립되었다.⁽¹⁰⁹⁾ 이렇게 해서 小生産者의 축적자본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 중요성은 産業革命이 진전되어 ‘進入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저하경향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産業部

(107) Ashton, *op. cit.*, p. 97.

(108) Sidney Pollard, "Fixed Capital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Brita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XIV, No. 2, September 1964, pp. 301-7; Peter Mathias, *The First Industrial Nation: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700~1914*, London, 1969, p. 148 참조.

(109) Crouzet, *op. cit.*, pp. 165-6 참조.

門에 따라 時差를 두고 나타났기 때문에 小資本으로 企業을 설립할 수 있는 분야는 광범하게 존재하였다. 더구나 小企業家は 파아트너쉽(partnership)을 통해서 특히 부유한 先貨商人(merchant manufacturer) 資本을 迎入하여 보다 큰 企業을 설립하거나 企業을 확장할 수 있었다. 특히 1780년 이후의 投資 확대에는 先貨商人資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¹⁰⁾

이러듯 産業革命期の 原初的 産業資本은 주로 小生産者의 蓄積資本이었다. 그들은 自身의 蓄積資本으로 때로는 同業者(partner)와 共同으로 企業을 설립하고 실현된 利潤을 끊임 없이 再投資함으로써 企業을 확장하였다. 高利潤이 실현된 당시에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資本蓄積은 급진전하였다. 해밀턴(E.J. Hamilton)은 利潤인플레이션을 1750년 이후의 産業革命의 원인으로 보았는데⁽¹¹¹⁾ 대해서 하아트웰은 18세기 후반기에는 貨幣賃金이 工產品價格보다 상승하였으며 그것이 工業利潤을 압박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¹²⁾ 해밀턴의 見解는 오늘날 비판되고 있지만, 工產品價格의 하락은 技術進歩에 따른 生産性向上의 결과였으며 하아트웰의 주장과 같이 貨幣賃金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工產品에 대한 需要를 확대시킴으로써 전체로서 企業利潤은 증대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産業革命期の 資本蓄積의 典型的 方式은 自己資本→利潤의 再投資→企業擴大였다.

銀行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18세기 英國에는 株式會社조직의 잉글랜드銀行(Bank of England), 商人銀行家が 운영하는 런던의 個人銀行(private banks), 그리고 商工業者를 비롯해서 여러 원천의 資金으로 운영된 각 지방의 地方銀行(country banks)이 있었다. 잉글랜드銀行은 銀行券발행, 對政府金融 및 個人銀行에 대한 어음할인 등 중앙은행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한편 큰 企業에 대한 금융업무도 수행하였다. 런던의 個人銀行은 貿易企業에 대한 할인업무를 통해서 주로 단기 금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地方銀行은 그 地方의 商工業者에게 金融業務를 수행하였다. 특히 産業企業에의 資本供給과의 관련에서 중요한 것은 地方銀行이었다. 地方銀行은 銀行券의 발행과 어음할인업무를 통해서 産業企業에 단기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先貨업무를 통해서 장기 산업금융을 하였다. 地方銀行의 역할로서는 産業企業에의 단기운영자금의 공급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¹¹³⁾ 근래에 와서 地方銀行이 한 長期産業金融을 새로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¹¹⁴⁾ 그것은 아직 通說에 수정을 요할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地方銀行은 企業의 長期固定資本의 공급에서

(110) *Ibid.*, pp.169-170 참조.

(111) E.J. Hamilton, "Profit Infla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LVI, 1941~2 참조.

(112) Hartwell (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68.

(113) Ashton, *op. cit.*, p.105.

(114)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pp.178-9; Mathias, *op. cit.*, p.177.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더라면 企業의 固定資本의 조달에 줄 수 있었던 자금압박을 완화 또는 해소하여 줌으로써 産業革命期의 資本供給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地方銀行은 縱的으로는 런던의 個人銀行들과 어음할인을 통한 개별적인 금융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편 개인은행들은 잉글랜드 銀行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橫的으로는 全國적으로 다수 존재한 地方銀行들은 縱的으로는 런던의 個人銀行을 통해서 中央銀行으로서의 잉글랜드銀行과 연결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결관계를 통해서 南部農業地帶의 여유 資金의 北部工業地帶로의 地域的 移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¹¹⁵⁾

銀行 특히 地方銀行은 産業革命期의 資本供給에서 주로 短期運營資本의 공급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것이 産業革命의 기원으로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니다. 地方銀行은 1716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나 1750년에는 12行으로 증가하였음에 불과하며 그것이 數的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은 産業革命이 전개되는 1780년 이후였다. ⁽¹¹⁶⁾ 産業革命에 앞선 시기에 産業企業이 銀行融資에 의존하는 정도는 미약한 것이었다. 産業革命이 진전됨에 따라 금융문제가 증대하고 그에 대응해서 銀行이 數的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銀行制度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다. 銀行은 産業革命의 기원으로서 직접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제도적 전제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技術革新

産業革命期의 近代的 工業生産力은 技術革新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며 따라서 이 시기의 技術革新은 産業革命 그 자체와 同意語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産業革命期에는 많은 發明이 이루어지면서 技術革新이 진전되었다. 18世紀에 있어서 每 10年마다 부여된 特許數를 보면 1700년대 22件, 10년대 38件, 20년대 89件, 30년대 56件, 40년대 82件, 50년대 92件, 60년대 205件, 70년대 294件, 80년대 477件, 90년대 647件 그리고 1800년대 924件으로 나타나고 있다. ⁽¹¹⁷⁾ 特許數는 176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특히 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는 바로 産業革命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特許數가 60년대 이전에도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發明은 60년대

(115) Ashton, *op. cit.*, p.106; L.S. Pressnell, *Country Banking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401.

(116) 地方銀行은 1784년에는 119行, 1797년에는 280行, 1800년에는 370行, 그리고 1810년에는 654行으로 증가하였다. Pressnell, *Ibid.*, pp.4,11.

(117) B.R. Mitchell and Phyllis Deane, *Abstract of British Historical Stat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p.268 참조.

이전에도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그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760년대 이후 發明이 加速化된 原因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래 두가지 說이 주장되어 왔다. 그 하나는 ‘體系說’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英雄說’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體系說’은 技術史家 어셔(A.P. Usher)의 見解에 의해서 대표된다. 어셔에 의하면 發明은 모름지기 일정한 필요에 대응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기적으로 나타나는 4개 段階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즉 (1) 발명의 필요성이 認知되는 段階, (2) 해결의 기본 자료가 제공되는 단계, (3) 기본적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는 통찰력이 나타나는 단계, (4) 발명의 최종단계이다.⁽¹¹⁸⁾ 어셔로서는 1760년대 이후의 技術革新의 대부분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맹아적으로 존재한 것이면서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던 諸發明속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어셔의 경우 發明에 있어서는 外的 技術의 條件이 중요하며 發明家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體系說’이 發明의 필요성 및 繼起性을 중요시 하는 데 대해서 ‘英雄說’은 偶然的 天才性을 중요시한다. ‘英雄說’은 다음과 같은 見解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事實 과거 150년간의 급속한 進歩는 ‘科學의 前進’ 이라든가 ‘技術의 進歩’라는 語句에 의미를 부여하고 個個人的 意思, 決定 및 투쟁과는 無關한 諸力에 의해서 강요된 운동이라는 인상을 낳는 것같이 보인다. 그 時期에는 한 天才가 다른 天才의 바로 뒤를 따랐다. 그러나 뛰어난 發明家들이 특히 많았던 이 時代를 個人的인 공헌이 더 이상 확인될 수 없는 時代로 記述한다는 것은 事實의 기묘한 轉倒이며 16·7세기의 和蘭에서의 ‘繪畫의 前進’, 또는 英國에서의 ‘드라마의 前進’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큰 오해이다.”⁽¹¹⁹⁾

그러나 ‘體系說’의 경우는 플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段階間的 時差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時差는 상당한 長期間일 수가 있다. 그러한 段階를 계기적으로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發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18세기 후반기에 加速化될 필연성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예를 들어 그것은 1589년의 코크스製鐵에 관한 최초의 特許가 1709년에 다아비(A. Darby)에 의해서 최초의 成功的인 發明으로 귀결되고 1738년에 포울(Lewis Paul)이 고안한 水力紡績機가 1769년에 아아크라이트(R. Arkwright)에 의해서 特許가 획득되게 된 필연성을 설명할 수 없다.⁽¹²⁰⁾ 한편 ‘英雄說’은 技術的이며 經濟的 問題인 發明·技術革新의 문제를 우연성 또는 개인의 天才性으로 설명하려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發明이 단순히 技術上的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生産力의 확대를 결과하는 技術革新으

(118) A.P. Usher, *A History of Mechanical Invention*, Cambridge, 1954, pp. 65-6.

(119) J. Jewkes, D. Sawers and R. Stillerman, *The Sources of Invention*, London, 1958, pp. 16-17.

(120) Flinn, *Origins*, p. 72.

로 이어지는 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經濟的 動機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經濟的 動機로서 需要擴大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需要가 확대되어 供給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生産力확대에의 압력은 커지고 그것이 發明과 技術革新을 자극하였다. 한 工程에 技術革新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른 工程에서의 技術的 不均衡을 발생시켜 그들 工程에서의 새로운 技術革新을 계기적으로 유발시키게 되고 또한 한 産業部門에서의 技術革新은 같은 過程으로 다른 部門에서의 技術革新을 유발하였다.⁽¹²¹⁾ 예를 들어 飛杼의 발명(1733년)이 織布能力을 크게 함으로써 결국 紡績能力 증대의 필요를 크게 하여 紡績機의 발명(1769, 1770년)을 유발하고, 鐵工業에서도 鐵鐵 및 棒鐵의 兩部門間의 技術的 不均衡이 技術革新을 촉진시켰다. 리글리(E.A. Wrigley)는 石炭 및 鐵鑛石 등 鑛物原料의 공급확대의 필요성이 動力(증기기관) 및 交通手段(운하, 鐵道)에서의 技術革新을 유발하는 단계를 밝히고 있다.⁽¹²²⁾ 이렇게 해서 技術革新은 새로운 技術革新을 유발하였다. 技術革新의 결과로서의 生産力の 큰 증대는 價格下落을 결과하고 그것은 需要擴大를 야기시키며, 다시 그것은 일층의 技術革新을 유발하였다.

에슈튼은 發明이 소수의 天才의 우연적 업적이 아니라 일정한 社會經濟的 條件을 전제로 이루어진 ‘社會的 過程’⁽¹²³⁾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發明은 人間의 歷史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農民이라든가 非熟練勞動者의 社會에서는 거의 盛行하지 않는다. 發明은 分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單一生産物이라든가 單一 工程에 全力을 集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결실될 수가 있었다. 分業은 이미 18세기 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産業革命은 專業化의 原理가 高度化하고 발전한 원인이며 결과였다.”⁽¹²⁴⁾

18세기의 발명은 어떠한 性格의 것이었는가. 그것은 17세기의 ‘科學革命’ 이후의 科學的 知識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科學的 知識의 발달과 技術進歩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産業革命期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 문제에 관한 傳統的 見解는 産業革命期의 發明과 技術革新이 대부분 無學의 實際家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科學的 知識의 도움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見解는 오늘날에도 유력하며 科學이 技術進歩에 대해서 광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121) Ashton, *op. cit.*, pp.88-89;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pp.129-131 참조.

(122) E.A. Wrigley, “The Supply of Raw Material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Vol. XV, No. 1, 1962.

(123) Ashton, *op. cit.*, p.14.

(124) *Ibid.*, p.15.

은 19세기 중엽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다.⁽¹²⁵⁾

이에 대해서 무손(A.E. Musson)과 로빈슨(E. Robinson)은 産業革命期の 發明의 대부분이 실용적 經驗主義의 産物이며 科學의 知識보다도 傳統的, 經驗的 熟練의 重要性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傳統的 見解가 應用科學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王立協會(Royal Society, 1660년설립)의 뒤를 이은 王立技術協會(Royal Society of Arts, 1775년 설립), 맨체스터文學·哲學協會(Literary and Philosophical Society in Manchester, 1781년 설립), 버밍컴 루나協會(Lunar Society in Birmingham) 등 中央과 地方의 諸協會를 통해서 많은 製造業者라든가 엔지니어들이 自然科學者들과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應用科學의 지식이 技術的 諸問題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¹²⁶⁾ 그들에 앞서서 스코필드(Robert E. Schofield)는 ‘버밍컴 루나協會’가 버밍컴에서의 工業家와 科學者의 밀접한 교류의 기구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밝히고 있다.⁽¹²⁷⁾ 이와 같은 研究成果를 전제로 무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王立協會와 王立技術協會에서는 科學的 관심을 가진 工業家들은 탁월한 哲學者들과 교류하였다. 이해를 같이하는 유사한 커뮤니티는 버밍컴 루나協會, 맨체스터 文學 및 哲學協會 그리고 全國의 地方都市에 설립된 덜 有名하지만 다수의 유사한 단체들과 같은 地方的 協會들에 있었다. 한편 보통의 水車木工, 建築工, 織布工등은 때로는 후의 技術協會의 선구인 보다 작은 地方的 클럽에 속하였다. 약간의 지도적 工業家들은 특히 스코트랜드의 大學이나 非國教徒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한편 다른 많은 사람들은 書籍 및 도서관 그리고 巡回講義의 도움으로 ‘自習’의 두드러진 업적을 올렸다.”⁽¹²⁸⁾

應用科學이 각종 協會를 통해서 技術進歩에 영향을 주었다는 見解에 대해서 플린은 회의적이다. 그는 王立協會가 當時의 工業의 技術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協會員에 의한 科學의 成果와 1660년 이후의 技術進歩와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며 王立技術協會도 工業 및 農業技術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125) David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pp.104, 113-4, 323; P. Mathias, “Who Unbound Prometheus? Science and Technical Change, 1600~1800,” in A.E. Musson (ed.),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1972, p.94.

(126) A.E. Musson and E. Robinson, “Science and Industry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III, No. 2, 1960; do.,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Manchester, 1969.

(127) Robert E. Schofield, “The Industrial Orientation of Science in the Lunar Society of Birmingham.” 이 논문은 1957년에 *Isis(Quarterly Journal of the History of Science Society)*에 발표되었으나 후에 A.E. Musson (ed.),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1972에 수록되었음.

(128) Muson (ed.), *op. cit.*, pp.60-1.

설립되었지만 18세기의 중요한 발명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린은 科學의 知識과 發明의 접근은 18세기의 7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科學者와 產業家에 의해서 이루어진 科學的 및 技術的 諸成果가 工業發展에 기여하였지만 그들 成果의 많은 것은 工業發展의 결과였다고 지적하고 科學과 工業發展의 相互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¹²⁹⁾

産業革命期の 科學과 技術의 관계에 관한 傳統的 見解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는 있지만, 産業革命初期의 技術이 科學的 知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⁰⁾ 그러면 ‘科學革命’에 따른 科學的 知識의 발달은 産業革命의 기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매다이어스는 科學과 技術은 社會가 보다 새로운 것을 알려 하고, 探索의이고, 實驗을 추구하고 改良하려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科學과 技術의 새로운 普及者로서의 百科辭典이라든가 王立技術協會 및 루나協會 등의 諸기구가 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¹³¹⁾ 플린도 科學의 技術進歩에 대한 직접적 기여 보다도 知的·文化的 背景을 중요시하고 있다.⁽¹³²⁾ 로스토우는 “科學革命은 人間이 자신과 社會에 대해서 物質世界에 대해서 그리고 宗教에 대해서 思考하고 知覺하는 方式을 不可逆的으로 변화시켰다. 科學革命은 또한 18세기 말의 최초의 産業革命의 到來와 어떻게든지 관계를 가졌다.”⁽¹³³⁾고 지적하고 있다. 産業革命의 기원과 관련해서 科學的 知識의 발달의 중요성은 그것이 科學的으로 思考하고 技術改良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증대시켰다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人口增加

産業革命의 人口學的 起源은 어떤 것인가. 産業革命에 수반한 人口增加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문제는 産業革命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랫동안 많은 學者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¹³⁴⁾

18세기의 人口動態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人口資料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129) Flinn, *Origi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p.75-7.

(130) Thompson, *op. cit.*, p. 81.

(131) Mathias, “Who Unbound Prometheus?” Musson(ed.) *op. cit.*, pp.95-6.

(132) Flinn, *op. cit.*, p. 75.

(133) Rostow, *How It All Began*, p.133.

(134) 吉玄謨, 「産業革命時代の 人口問題」(西江大學 人文科學研究所 編, 『十八世紀 유럽의 社會와 文化』, 1968 수록) 참조.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英國(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최초의 全國 人口調查(census)가 실시된 것은 1801년이고 出生, 死亡 및 結婚에 관한 戶籍記錄이 시작된 것은 1837년에 이르러서였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의 英國의 人口動態를 分析하는 데에는 爐稅(hearth taxes)라든가 戰時稅에 관한 記錄 및 死亡調書(Bills of Mortality)등도 이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資料는 敎區登錄簿(Parish Register)이다. 敎區登錄簿는 英國敎會의 牧師가 그들의 敎區民의 洗禮, 埋葬 및 結婚에 관해서 기록한 것으로서 헨리 8世時代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기록된 것은 아니며 損傷이 많고 또한 非國敎徒를 포함하지 않은 등 資料로서의 결함이 많은 것이지만 오늘날 英國人口史의 資料로서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 資料를 기초로해서 有用한 人口情報를 얻는 방법으로는 세가지가 있다.⁽¹³⁵⁾ 첫째는 릭맨(John Rickman)의 방법이다. 1801년의 최초의 全國人口調查의 責任調查官이었던 릭맨은 全國(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敎區牧師에게 1700~80년 기간에는 10년마다 그리고 1780~1800년 기간에는 매년의 洗禮와 埋葬에 관한, 그리고 1754년 이후 매년의 結婚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조정 보완하여 1780년까지는 매 10년 그리고 그후 1800년까지는 매년의 全國의 總洗禮, 埋葬 및 結婚數를 산출하였다. 그후 그는 이러한 資料蒐集을 이 登錄簿가 기록되기 시작한 1541년부터 최초의 戶籍기록이 나타나 1838년까지 확대하였다. 그는 이렇게해서 수집한 資料로부터의 集計와 1801년의 人口調查 結果를 “敎區登錄발췌”(Parish Register Abstracts)로 출판하였다. 이 資料가 그후의 人口學者들에 의해서 광범하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릭맨의 集計를 이용하지 않고 原敎區登錄簿를 이용하여 個別 또는 敎區群의 洗禮 結婚 및 埋葬에 관한 自身の 集計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릭맨의 全國的 集計에 비하면 그 범위에서 한계가 있으나 死亡, 結婚 및 出產力의 短期變動의 性格이라든가 敎區民總數와 관련지을 수 있으면 洗禮率의 算出 등 특정 문제에 대해서 有用하다.

세째는 單一敎區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 資料를 家族再構成法(family reconstitution)에 의해서 加工하는 방법이다. 1956년에 프랑스의 플르리(M. Fleury)와 앙리(L. Henry)에 의해서 개발된 이 방법은 1950년에 英國에 처음 도입되고 1964년 이후 스코필드(R.S. Schofield) 라슬렛(P. Laslett) 및 리글리(E.A. Wrigley)의 ‘캠브리지 그룹’(Cambridge Group for the History of Population and Social Structure)에 의해서 英國人口史研究에 적용되게 되었다. 이 방법에 의한 최초의 주목된 成果는 콜리튼(Colyton)

(135) M.W. Flinn, *British Population Growth, 1700~1850*, London, 1970, pp.12-15.

敎區에 관한 것으로서 1966년에 리글리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며⁽¹³⁶⁾ 그후 이러한 연구의 全國의범위로의 확대가 지향되었다. 특히 리글리와 스코필드는 404敎區에 걸쳐 家族再構成, 敎區登錄簿로부터의 集計 그리고 무수한 地方人口研究者의 研究成果에 기초해서 1981년에는 全國의 범위의 방대한 研究成果⁽¹³⁷⁾를 출판하였다.

그러면 18세기 英國의 人口動態는 어떠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推計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딘과 콜에 의하면 英國(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人口는 1701년의 583만명에서 1751년에는 614만명, 1801년에는 916만명, 그리고 1831년에는 1,405만명으로 증가하였다.⁽¹³⁸⁾ 딘에 의하면 英國人口는 1700~1741년에 580만명 내지 600만명 수준에서 정체하다가 1741~51년의 10년간에는 약 3.5%, 1751~61년의 10년간에는 약 7%, 1780년대에는 약 10%, 1790년대에는 약 11%, 그리고 19세기 20년대에는 약 1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1801년의 人口는 900만명을 넘었다고 推計하였다.⁽¹³⁹⁾ 18세기 전반기에 정체하고 있던 人口증가율은 중엽부터 크게 上昇하기 시작하여 1780년대 이후에는 年평균 1%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그리고 産業革命期에 英國의 人口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18세기 人口成長의 年代記에 대해서는 見解의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딘과 콜은 ‘敎區登錄 발취’의 洗禮 및 埋葬資料에 의거하여 人口成長率이 18세기 전반기(5%) 보다 후반기(49%)에 크게 높아졌음을 주목하고 딘은 人口成長이 加速화된 年代로서의 轉換點을 18세기 중엽으로 보았다.⁽¹⁴⁰⁾ 딘과 콜의 見解는 같은 資料에 의거하여 人口증가가 1760년 이후에 가속화되었다고 보는 그리피드(G.T. Griffith)⁽¹⁴¹⁾이래의 傳統的 見解와 같다.

그러나 ‘敎區登錄 발취’의 洗禮 및 埋葬數를 出生 및 死亡率로 換算하고 總人口數로 옮기는 데에는 若干의 誤差가 있을 수 있으며 1751년의 人口數의 경우 비록 작은 誤差일지라도 그것은 18세기 전반기에서와 후반기에서의 人口成長率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136) E.A., Wrigley, "Family Limitation in Pre-Industrial England,"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IX, 1966, reprinted in M. Drake (ed.), *Population in Industrialization*, London, 1969.

(137) E.A. Wrigley and R.S. Schofield,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1541~1871: A Reconstru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이 연구에 대한 論評으로는 M.M. Flinn,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1541~1871,"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XXV, No. 3, August 1982 및 Peter Lindert, "English Living Standards, Population Growth and Wrigley-Schofield,"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0, 1983이 있음.

(138) Deane and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p.103.

(139)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p.32.

(140) *Ibid.*, pp.24, 34.

(141) G.T. Griffith, *Population Problems of the Age of Malth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6.

다. 이러한 理由에서 ‘敎區登錄 발취’에 기초를 둔 18세기 人口史研究에 대한 批判이 1960년을 전후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人口成長의 年代記에 관한 傳統的 見解에 대한 비판으로 처음 제시된 見解는 영슨(A.J. Youngson)의 그것이었다.⁽¹⁴²⁾ 그는 1755년의 스코트랜드인에 관한 웹스터(Alexander Webster)의 人口調査를 精確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과의 비교에서 18세기 英國의 人口를 算出하였다. 즉 그는 1755년에 127만명이었던 스코트랜드의 人口가 1801년의 조사에서는 168만명으로 나타났으므로 만약에 1755~1801년의 人口成長率이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 스코트랜드에서 같다고 한다면 1755년의 前者의 地域에서의 人口는 약 700만명이 되어 ‘敎區登錄 발취’ 資料에 의거하는 人口數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人口증가가 加速化된 時期는 18세기 中엽이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터커(G.S.L. Tucker)는 傳統的 見解를 中世이래의 人口의 長期的 成長패턴과 관련시켜 속도가 낮으나 恒常인 人口成長率이 1710~40년의 短期的 경제와 18세기 최후의 20년의 보다 급속한 成長을 예외로 1377년 이후 계속되었다고 보고, 1750년 이후 20내지 30년간의 人口의 보다 급속한 증가는 그에 앞선 시기의 異例的으로 낮은 증가의 ‘補償的 變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참다운 轉換點은 1750년경이 아니라 1780년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³⁾ 이러한 見解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中엽 轉換點說이 有力하다. 리글리와 스코필드도 최근의 방대한 研究에서 近代英國人口成長의 3局面을 (1) 1541년 이후 100年間的 成長期 (2) 1640~1701년의 경제 및 그후 1741년까지의 低成長期, (3) 1741년 이후의 急成長期로 구분하여 새로운 轉換點으로서 18세기 中엽을 중요시하는 傳統的 見解에 접근하고 있다.⁽¹⁴⁴⁾

그러면 이와 같은 人口증가의 原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死亡率감소인가 아니면 出生率증가인가. 18世紀 英國人口史의 爭點은 바로 이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人口와 産業革命과의 관련에 대한 인식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中엽이후의 人口증가의 原因에 관한 傳統的 見解는 死亡率減少說이다. 이 學說은 1926년에 그리퍼드와 뷰어(M.C. Buer)⁽¹⁴⁵⁾에 의해서 정립된 후 1950년 경에 이르기까지 支配的 學說이었다. 특히 그리퍼드는 ‘敎區登錄 발취’ 資料에 기초하여 人口증가에 대해

(142) A.J. Youngson, "Alexander Webster and his 'Account of the Number of People in Scotland in the Year 1755'," *Population Studies*, XV, 1961~2.

(143) G.S.L. Tucker, "English Pre-Industrial Population Trend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VI, No. 2, December 1963.

(144) Wrigley and Schofield, *op. cit.*, pp.161-162.

(145) M.C. Buer, *Health, Wealth and Population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London, 1926 (reprinted 1967).

서 死亡率低下가 出生率 증대보다도 큰 效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前者의 原因으로 醫學, 科學 및 衛生學의 進歩를 중요시하였다. 그후 마아샬(T.H. Marshall)⁽¹⁴⁶⁾도 出生率증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리퍼드의 死亡率減少·醫學的 및 衛生學的 進歩說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死亡率減少說은 클레팸에서 에슈톤에 이르기까지 많은 學者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通說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 傳統的 學說에 대한 유력한 反論이 하바쿠크(H.J. Habakkuk)에 의해서 제기되었다.⁽¹⁴⁷⁾ 人口史家로서보다도 經濟學者·經濟史家로서의 그는 人口증가의 원인을 經濟發展과 관련시켜 醫學 및 衛生의 進歩에 의한 死亡率減少 보다도 經濟的 變化에 따른 出生率增大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의 하나의 목적은……人口증가의 加速化가 주로 명백히 經濟的 諸變化의 결과이며 특히 勞動에 대한 需要증대의 결과였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증대한 需要의 作用樣式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 주된 효과는 結婚年令의 저하와 그에 따른 出生증가인가 또는 勞動者들의 子女扶養能力의 증대인가. 이 논문의 둘째 目的은 첫째의 效果가 더욱 중요하였다는 見解, 즉 需要의 증대는 死亡率보다도 出生率을 통해서 작용하였다는 견해를 하나의 假說로서 復位시킨다는 것이다. 그 마지막 目的은 18세기 人口증가의 原因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統計的 證據는 論理的으로 가능한 諸說明 중의 어느 것을 확신을 갖고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¹⁴⁸⁾ 하바쿠크는 出生率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마아샬의 시사에 영향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死亡率減少說을 비판하여 經濟的 條件과의 關係에서 人口動態를 인식하고 出生率增加說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주목되는 것이었다.

한편 그리퍼드의 見解는 맥쿤(Thomas Mckeown)과 부라운(R.G. Brown)에 의해서도 비판되었다.⁽¹⁴⁹⁾ 醫學者인 이들은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이 시기에 醫學的 進歩가 있었음을 밝히면서도 그것이 실제에 死亡率減少를 결과할 만큼의 效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醫學的 進歩에 의한 死亡率減少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도 生活環境의 개선에 따른 疾病의 감소에 의한 死亡率減少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146) T.H. Marshall, “The Population Problem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ote on the Present State of the Controversy,” *Economic History*, 1, 1929, reprinted in E.M.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London, 1954.

(147) H.J. Habakkuk, “English Popula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VI, No. 2, December 1953.

(148) *Ibid.*, p. 133.

(149) T. McKeown and R.G. Brown, “Medical Evidence Related to English Population Changes in the Eighteenth Century,” *Population Studies*, 9, 1955.

들은 마아살이라든가 하바쿠크의 死亡率低下는 出生率증대의 부수적 결과라는 주장과는 달리 후자야말로 진자의 부수적 결과라고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死亡率減少說의 입장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研究는 産業革命期の 人口史研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나 그리피드의 見解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하바쿠크의 假說이 확실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人口統計資料의 근본적인 再檢討를 통한 뒷바침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作業을 통해서 出生率增加說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學者는 크라우스(John T. Krause)였다. 그는 그의 일련의 研究⁽¹⁵⁰⁾에서 傳統的 見解가 의거하고 있는 ‘教區登錄簿’가 非國教徒에 대한 기록이 없고 出生·死亡에 대한 기록이 不正確하여 資料로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傳統的 見解가 의거하고 있는 推定은 현실보다 25% 정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英國教會는 工業化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늦게 나타나고 그곳의 非國教徒에 관한 기록은 없으므로 ‘教區登錄簿’는 工業地域에서의 人口動態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教區登錄簿’의 資料의 결함을 면밀히 分析, 檢討함으로써 크라우스는 결과적으로 人口증가의 原因이 出生率증대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그것은 유리한 經濟的 條件의 결과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홀링스워드(T.H. Hollingsworth)는 英國貴族의 族譜研究를 통해서⁽¹⁵¹⁾ 産業革命과 직접 관계가 있는 階級은 아니나 公爵家門의 경우 1760~1860년에 出產能力이 크게 上昇하였으며 그것은 結婚年壽의 저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出生率增大說을 뒷받침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死亡率低下說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헬레이너(K.F. Helliner)⁽¹⁵²⁾는 18세기 人口증가의 原因을 天然的 慘禍(natural crises)의 消滅에 의한 生存力革命(vital revolution)에서 찾았고 래즐(P.E. Razzell)⁽¹⁵³⁾은 그것을 種痘와 牛痘의 도입에 의한 天然痘撲滅에서 찾았다. 이러한 見解들은 死亡率低下說과 통하는 것이었다.

(150) John T. Krause, "Changes in English Fertility and Mortality, 1781~1850,"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I, No. 1, August 1958; do., "Some Neglected Factors in the Englis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9, 1959; do., "English Population Movements between 1700 and 1850," *Collected Papers of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N.Y. 1961. 마지막 두 論文은 Drake (ed.), *Population in Industrialization*에 수록되어 있음.

(151) T.H. Hollingsworth, "A Demographic Study of the British Ducal Families," *Population Studies*, Vol. XI, 1957 (reprinted in Drake (ed.), *Population in Industrialization*).

(152) K.F. Helleiner, "The Vital Revolution Reconsidered."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Vol. XXIII, 1957, reprinted in D.V. Glass and D.E.C. Eversley (ed.), *Population in History*, London, 1965.

(153) P.E. Razzell, "Population Change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A Re-interpretation,"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XVIII, No. 2, August 1965.

그러나 오늘날 人口증가의 원인을 經濟的 變化와 관련시켜 出生率증대를 중요시하는 見解가 有力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딘과 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研究에 비추어 蓋然的인 것은 死亡率減少가 産業革命期의 人口증가에서 한 역할은 이전에 생각되던 것보다 작았으며 또한 死亡率의 급격한 低下는 人口증가가 최고점을 지난 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히 할 수 있는 證據는 일반적으로 18세기말과 19세기초에 일어난 死亡率低下가 런던과 農村地域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편에서 工業成長의 직접적 영향을 느낀 諸地域에서의 人口증가는 명백히 出生率증대에 基因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出生率의 증가가 工業化過程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이 보인다. 비록 이 증가가 주로 結婚年令의 저하, 出産力의 증대 또는 私生兒의 증대의 결과로서 일어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¹⁵⁴⁾ 리글리와 스코펠드는 그들의 최근의 연구에서 出生率과 死亡率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여 18세기 후반기의 人口增加率의 加速化를 女子의 結婚年令의 低下에 따른 出産率증대로 설명하고 있다.⁽¹⁵⁵⁾ 그리고 그들은 實質賃金과 結婚率, 總出産率 및 人口成長率間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여 前者의 上昇 추세가 후자의 上昇과 時差를 두고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人口變動은 주로 先行한 經濟的 刺戟에 대한 反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⁶⁾

그러면 18세기의 人口增加는 産業革命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死亡率低下는 所得上昇과 生活水準의 改善이라는 經濟的 要因과 醫學의 발달이라든가 生活環境의 改善이라는 非經濟的 要因으로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死亡率低下說은 經濟的 要因보다도 非經濟的 要因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人口增加는 그 경우 經濟的 變化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出生率 增加說은 經濟的 要因을 중요시한다. 즉 經濟成長이 人口增加를 결과하였다는 것이다. 人口增加를 經濟成長의 從屬變數로 보는 見解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의 英國의 人口增加가 經濟成長의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한편 증가하는 人口가 經濟成長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經濟成長이 결과한 人口增加의 加速化가 人口壓力으로 나타나 결국에는 經濟成長을 制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의 英國에서는 實質總產出量增加(2.5배)가 人口成長率(66%)를 훨씬 上廻함으로써⁽¹⁵⁷⁾ 人口增加가 成長에 대한 制約要因이 되지는 않았다. 반대로 人口增加는 18세기 英國의 經濟

(154) Deane and Cole, *op. cit.*, pp. 133-4.

(155) Wrigley and Schofield, *op. cit.*, pp. 244, 247, 255, 267-268.

(156) *Ibid.*, pp. 435, 450-453.

(157) Flinn, *Origi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30.

成長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學者들에 의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풀린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즉, (1) 풍부한 勞動力의 공급, (2) 需要擴大, (3) 人口의 都市集中에 따른 家屋 및 交通機關의 확대, (4) 젊은 精力과 制約없는 技術革新을 위한 機會의 창출, (5) 資源再編의 필요성 및 보다 많은 經濟的 機會創出壓力, (6) 市場擴大에 따른 企業에 의한 規模의 經濟의 추구이다.⁽¹⁵⁸⁾ 특히 人口증가의 풍부한 勞動力供給 및 需要擴大效果는 많이 강조되어온 것이다. 이들 諸要素가 결합하여 人口增加는 産業革命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인식되고 있다.

3. 社會的·知的 條件

앞에서 고찰한 經濟的 諸條件은 産業革命의 必要條件이기는 하지만 充分條件은 아니다. 産業革命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諸原因에 의해서 일어나고 전개된 것인 만큼 經濟的 諸原因과 함께 그들이 순조롭게 작용할 수 있는 社會的·知的 條件이 필요하였다. 퍼킨(H. Perkin)은 産業革命의 原因으로 地理的, 技術的, 經濟的, 政治的, 科學的 및 宗教的 原因의 結合을 들면서 그들 諸原因을 결합하여 産業革命의 充分條件을 만든 “중심적·統合的 原因은 英國 社會의 特質과 構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⁹⁾

産業革命의 社會的 起源은 기본적으로 市民革命(1640~60년)과 그 후의 역사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市民革命에 의해서 絕對主義體制는 무너지고 議會가 國家權力의 중심이 되었다. 王政復古후의 王權은 제한되었다. 議會의 중심세력은 地主階級이었으나 그들은 이미 封建的 領主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르조아적 성격의 地主였다. 市民革命에 의해서 地主와 國王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봉건적 관계는 최종적으로 폐기되어 地主의 所有權은 보장된 반면에 土地保有農民의 이해관계는 무시되어 農業의 資本主義的 轉성의 진진을 제약하는 전통적 요소는 소멸되게 되었다.

市民革命의 原因이 어느 한 계급의 이해관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市民革命을 추진한 세력의 계급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¹⁶⁰⁾ 諸改革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윌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絕對王朝의 종말 즉 特權裁判所의 종말과 새로 확대된 議會의 역할은 그 속에서 經濟的 變化와 확장이 舊體制下에서 보다 시대착오적 干涉을 덜 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는 政府와 法의 기반을 창출하였다. 1660年 후의 1世紀동안

(158) *Ibid.*, pp. 31-35.

(159) Perkins,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p. 16.

(160) C. Hill, *Reformation to Industrial Revolution: The Making of Modern English Society*, Vol. 1, 1530~1780, N.Y., 1967, pp. 100-102.

에 볼 수 있었던 이들 經濟的 추세는 정부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 정부터의 계속이었다. 社會構造는 경험적으로 進化를 계속하였다. 그것은 革命을 겪은 것은 아니다.”⁽¹⁶¹⁾ 市民革命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資本主義의 발달에 유리한 것이었다. 퍼킨은 市民革命 이후 英國의 土地貴族과 社會 및 國王과의 특수한 관계를 주목하고 “土地貴族은 순수한 利己心에서 自生的 產業革命을 일으키는 데에 가장 적합한 政治的諸條件——個人的 自由, 財產權의 절대적 보장, 國內干涉의 極少化, 外國競爭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을 창출하였다”⁽¹⁶²⁾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王政復古 이후 自由放任(laissez faire) 정책이 도입되어 國內經濟活動에 대한 각종 統制는 완화되거나 철폐되었다. 絕對主義가 추구한 高佣 및 徒弟修業에 관한 規制, 國內穀物去來의 제한, 反인클로우저法, 奢侈禁止法 등을 비롯하여 國內經濟活動을 제약하던 諸規定은 철폐되거나 死文化되었다. 經濟活動의 自由가 확립되면서 競爭原理가 經濟活動을 지배하게 되고, 길드制가 폐지되고 農村共同體가 解體되면서 ‘本源的 資本蓄積’은 아무런 제약없이 진전될 수 있게 되었다. 階級間的 社會的 可動性은 더욱 증대하였다. 英國社會의 可動性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컸다. 퍼킨은 英國의 舊社會의 특징으로 貴族階級の 開放性을 강조하고 있다.⁽¹⁶³⁾ 英國의 貴族階級은 개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時代的 變化에 신속적으로 적응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예를 들어 프랑스 貴族의 閉鎖性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英國市民革命과 프랑스革命의 性格上的 차이, 그리고 英國에서 產業革命이 그리고 프랑스에서 과격한 政治革命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社會的 基盤의 차이에 연유하는 바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社會的 可動性은 市民革命 이후 더욱 커졌다. 한편 1661~1665년에 제정된 일련의 法律(Clarendon Code)에 의해서 非國教徒는 公民權이 박탈되어 國教徒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劣等한 지위에 서게 되었으나 宗教的 自由를 획득하고 그후 經濟活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⁶⁴⁾ 經濟活動의 自由가 확립되고 社會的 可動性이 증대하는 속에서 能力있는 者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¹⁶⁵⁾ 그것은 企業家活動의 전개·產業資本의 成立에 유리한 기본적 조건이었다.

經濟意識=精神의 측면에서도 英國에서는 資本主義의 발달에 적합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

(161) Wilson, *England's Apprenticeship*, p.138.

(162) Perkin, *op. cit.*, p.67.

(163) *Ibid.*, p.17.

(164) Wilson, *op. cit.*, p.137.

(165) Habakkuk, “The Historical Experience...,” *Supple (ed.)*, *op. cit.*, p.114.

었다. 이 측면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일찌기 베버(Max Weber)에 의해서⁽¹⁶⁶⁾ 시작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敎理와 資本主義精神과의 내면적 연관성을 증시하여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가 世俗的 職業活動을 合理的인 것으로서 추구하는 精神을 낳고 그것이 資本主義발달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후 베버 命題를 資本主義발달의 여러 局面과 관련시켜 고찰하려는 많은 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베버의 命題는 16세기의 宗教改革과 관련된 프로테스탄트 世界 일반에 관한 것으로서 傳統主義와 資本主義精神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英國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그것이 産業革命의 起源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베버命題의 産業革命과의 연관은 토오니(R.H. Tawney)를 통해서 보다 접근되게 되었다.

토오니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16세기의 宗教改革이 아니라 16세기 말과 17세기에 있어서의 淸教徒의 출현이었다. 토오니는 淸教徒의 敎理가 資本主義的 企業에 대해서 유리하였던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淸教徒—引用者)은 끊임없는 活動이라고 하는 道德的 義務, 勞動의 自己目的性, 사치와 낭비라고하는 惡德, 慎重과 節約, 節制와 자기훈련, 그리고 合理的 計算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도의 행동에 관한 하나의 理想을 창조하였으며, 그 理想은 經濟學者들이 社會의 無秩序에 대한 특효약이라고 설교한 能率을 하나의 倫理的 原理로서 神聖化하였다. 그 理想은 새로운 것임과 동시에 매혹적인 것이었다.…… 經濟進歩를 한편에서는 언제나 멀어지면서도 의식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目的으로 보는 觀念은 대부분의 이전 世代의 英國人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道德論者들의 主題는 제약없는 貪欲의 위협이었고 公共政策의 主目標은 傳統的 諸關係의 안정이었다. 經濟的 進歩에 관한 이 觀念은 勞動과 企業를 神에의 奉仕와 同一視하는 데에서 새로운 承認을 발견하였다. 1세기 동안에 物質文明의 양상을 변화시킬 거대한 힘은 이 氣分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다. 生産의 그리고 보다 많은 生産의 崇拜——百萬長者와 그의 불행한 下人의 奴隸的 苦役——은 이 同一한 강압적 敎理의 가르침에 의해서 신성화되었다.”⁽¹⁶⁷⁾ 토오니는 웨버命題를 人間의 社會觀에 미친 宗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높히 평가하면서도 經濟的·社會的 變化가 宗教改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응한 고찰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¹⁶⁸⁾ 英國의 宗教思想에 미친 당시의 經濟發展의 영향을 아울러 고찰하였다.

(166)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XX und XXI, 1904~5; 權世元·姜命圭 共譯,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1958 참조.

(167) R.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A Historical Study*, London, 1926 (reprinted 1948), pp. 248-9.

(168) *Ibid.*, pp. xviii-xix.

힐(C. Hill)도 기본적으로 토오니의 立場에서 淸敎主義와 資本主義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그의 중심적 神學的 태도를 통해서 資本主義의 興隆에 크게 기여하였다…… 내면적 확신에 대한 호소와 聖職者가 그것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부과한 틀에 박힌 儀式의 거부는 社會에서 解放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다.……16·7세기의 로오마敎會에 대한 반대가 그 주요한 힘을 大都市들로부터 끌어내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은 資本主義의 興隆에 유리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 속에는 자동적으로 資本主義로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중요성은 오히려 그것이 凱톨릭의 보다 경직된 제도라든가 儀式이 부과한 장애물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었다. 宗教改革은 로오마敎會와 그것을 보호한 政治權威에 반대하는 대중을 동원하였다.”⁽¹⁶⁹⁾

이에 대해서 로버트슨(H.M. Robertson)은 17세기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精神의 강화가 淸敎主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資本家の 中産階級の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의 倫理는 興隆하는 資本主義의 心性을 가진 中産階級の 영향을 받아 변화한 것이지 그 逆은 아니었다.⁽¹⁷⁰⁾ 한편 사무엘손(K. Samuelsson)은 宗教가 經濟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베버命題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베버가 특수 淸敎徒의 德性으로 勤勉이라든가 節約은 凱톨릭의 프랑스에서도 강조되었고 그것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¹⁾ 이러한 사정을 하아트웰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기본적인 딜레마는 資本主義가 프로테스탄티즘이 있으나 없으나 興隆하였고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이 資本主義가 있으나 없으나 興隆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 제시된다. 外生的으로 變化한 價値가 人間을 보다 크고 효과적인 노력으로 박차를 가하였는지 또는 오히려 성공적인 企業이 변화에 유리한 환경과 그러한 企業에 유리한 價値의 合理化를 창출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¹⁷²⁾

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관계의 本質에 대해서는 見解들이 다르나 오늘날 대부분의 史家들은 프로테스탄티즘과 資本主義의 興隆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169) C. Hill, “Protestantism and the Rise of Capitalism,” in F.J. Fisher (ed.), *Essays in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udor and Stuart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pp.27, 35-36.

(170) H.M. Robertson, *Aspects of the Rise of Economic Individu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3, p. 32.

(171) Kurt Samuelsson, *Religion and Economic Action*, London, 1961; 田村光三·浦上雄次·金子光男 共譯, 『經濟と宗教』, 1971, pp.247-250.

(172) R.H. Hartwell, “Business Management in England during the Period of Early Industrialization: Inducements and Obstacles,” in R.H. Hartwell (ed.), *The Industrial Revolution*, Oxford, 1970, p. 34.

것을 인정하고 있다. (173) 플린은 兩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年代記적으로 資本主義形態의 企業의 발달과 관련된 淸敎主義敎理의 변화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있었다. 만약에 사무엘슨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淸敎主義의 敎義가 資本主義의 경향을 양육하였다 하더라도 宗教改革이후의 英國에서의 프로테스탄티즘, 淸敎主義 및 非國敎의 興隆은 가장 넓은 관계에서만 18세기 말엽에 시작되는 經濟成長率의 加速화와 명백하게 관련될 수 있다.” (174) 돔프슨은 宗教改革과 資本主義의 興隆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취하던 社會的 態度와 經濟의 作用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관계는 두 가지 方向에서 작용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中世의 宗教的 態度는 기본적으로 農村의이고 정체적인 經濟와 社會制度에 대해서 倫理的 뒷바침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英國이 19세기 중엽까지 이룩한 것과 같은 工業化된 나라의 態度는 필연적으로 달랐다. 그 중간 과도기에 있어서 變化하는 經濟환경은 분명히 倫理體系에 압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압력 밑에서 態度가 변화하는 속도는 확실히 經濟成長率에 반작용하였다. 따라서 만약 倫理的 變化가 전적으로 反應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그러나 ——企業家가 쉽게 발생될 수 있는 諸階級을 限定함으로써 또는 社會가 適法的이고 社會的으로 受容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諸活動을 限定함으로써——經濟的 進歩의 主要決定要素가 될런지 모른다”. (175) 프로테스탄티즘과 資本主義와의 관계의 本質이 어떠한 英國에서 資本主義의 興隆에 유리한 倫理的 精神的 風土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宗教와 産業革命과의 관계는 배버命題와는 다른 관점에서도 주목되었다. 그것은 産業革命期의 企業家가 非國敎徒에서 다수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다. 非國敎徒는 1770年代에 英格蘭드 및 웨일즈總人口의 3%에 불과하였으나, 産業革命 초기의 發明家와 主要企業家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176)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하이겐(E.E. Hagen)은 非國敎徒에서 다수의 企業家가 배출된 것은 그들의 宗教的 信條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社會的 少數集團 또는 從屬集團(subordinate group)으로서 社會的 地位의 불안정성을 逆利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퍼스널리티 心理學 특히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에 의거하여 從屬集團에서 창조적 企業家가 출현하는 메카니즘을 ‘地位尊重的 撤回’(“withdrawal of status respect”)→‘逃避主義’(“retreatism”)→‘革新的 活動의 出現’(“emergence of innov-

(173) Hill, “Protestantism and the Rise of Capitalism,” Fisher (ed.), op. cit., p. 15.

(174) Flinn, op. cit., p. 84.

(175) Thompson, op. cit., pp. 139-140.

(176) Peter Lane,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Birth of the Modern Age*, London, 1978, p. 143.

ational creativity)으로 인식하고 있다. 헤이겐에 의하면 ‘地位尊重的 撤回’은 ‘어떤 社會集團층에서의 그들의 人生의 목표라든가 價値가, 그들이 존경하고 또한 그 평가를 價値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社會에서의 諸集團에 의해서 존경되지 않고 있다는 知覺’⁽¹⁷⁷⁾을 의미하며, 그것은 (1) 힘에 의한 排除, (2) 價値지워진 象徴의 훼손, (3) 地位諸象徴의 不一致, (4) 새로운 社會에서의 非受容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¹⁷⁸⁾ 그래서 헤이겐에 의하면 ‘地位尊重的 撤回’라는 상태에 놓인 階層에 속한 사람들은 1世代 또는 2世代 동안은 逃避의 퍼스널리티를 갖게 되지만 그들의 社會에 대한 불만·분노가 가정환경을 변화시키고 社會化와 學習등을 통해서 결국 몇 世代 후에는 革新的 퍼스널리티를 갖게 된다.⁽¹⁷⁹⁾

헤이겐은 英國과 유럽大陸 3國(프랑스, 和蘭, 스웨덴)에서의 政治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퍼스널리티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퍼스널리티의 차이가 兩地域間的 政治構造의 차이의 原因으로서 보다 중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産業革命이 英國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英國이 놓여있던 환경이 유럽大陸 3國의 그것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양지역 國民間的 퍼스널리티가 달랐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¹⁸⁰⁾ 헤이겐은 英國人は 社會的 층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한 데 대해서 유럽大陸 3國人は 투쟁하였을 뿐이며, 英國의 中産階級은 政治的인 일에서 自身の 판단을 신뢰하고 政府에의 참여 증대를 기약이 풍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 유럽大陸의 3國人は 그와 같은 자기신뢰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같은 결론은 이들 4國의 宗教組織과 信條의 전개를 분석해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¹⁸¹⁾

産業革命의 원인을 心理學的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맥클랜드(D.C. McClelland)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¹⁸²⁾ 그는 특정한 人間的 動機 즉 成就欲求(need for achievement or n-achievement)가 企業家活動을 촉진하고 그것이 經濟成長의 기본 動因이 된다는 理論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그는 英國近代史의 경우 經濟成長의 속도와 方向에서의 주요한 變化가 있으면 그에 약 1世代 가량 앞서 成就欲求水準에서의 유사한 變化가 있었다고 보고 産業革命의 경우도 그에 앞서 18世紀初에는 成就欲求水準의 명확한 상승이 있었으며 특히 18세기

(177) E.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How Economic Growth Begins*, Illinois, 1962, p. 185.

(178) *Ibid.*, pp. 187-190.

(179) *Ibid.*, p. 193.

(180) E.E. Hagen, "British Personalit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Historical Evidence," in Tom Burns and S.B. Saul (ed.), *Social Theory and Economic Change*, London, 1967, p. 37.

(181) *Ibid.*, pp. 60-61.

(182) D.C. Mc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1961.

중업에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한 메도디스트(Methodist)의 子女教育이 成就動機의 발달을 촉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産業革命의 기원을 心理學的 動因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서는 유익하고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특히 헤이겐의 ‘從屬集團’ 또는 ‘少數集團’ 命題의 인식方向은 企業家史의 社會學的 研究에서 더욱 발전되어 왔다.⁽¹⁸³⁾ 그러나 그러한 心理學的 接近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理論的·實證的 문제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맥글랜드의 ‘成就欲求’는 企業家的 成就와 더 나아가서 經濟成長의 必要條件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充分條件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成就欲求’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企業家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心理的 要因은 社會의 構造的 制度的 要因과의 관련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産業革命의 知的 起源은 어떠한가. 애슈튼은 “(産業革命에는——引用者) 物質的 및 經濟的 要素의 배후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다. 외국의 여러지역과의 交易은 人間의 世界觀을 넓히고 科學은 그들의 宇宙觀을 넓혔다. 産業革命은 觀念의 革命이기도 하였다”⁽¹⁸⁴⁾ 고 지적하고 있다. 19세기의 時代思想으로서의 功利主義, 經濟的 個人主義 및 自由主義는 産業革命을 뒷받침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확립된 思想이지만 그러한 思想의 源流가 18世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논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思想的 전개가 産業革命의 기원으로 어떻게 연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증적인 논의를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유리한 知的 風土를 조성하였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7世紀의 ‘科學革命’(Scientific Revolution)에 따른 科學的 知識의 발달은 그 후의 哲學思想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生産手段의 改良=技術進步와 관련해서 주목되어 왔다.

産業革命의 知的 起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教育이다. 教育을 통한 知的 能力의 증대는 企業家라든가 勞動者의 資質을 높이고 그 만큼 生産性を 높히게 된다. 人的 資本의 개발은 經濟成長에 필요한 조건이며 따라서 教育投資의 필요성은 큰 것이다. 그런데 英國産業革命과의 관련에서 볼 때 教育의 역할은 직접적으로는 큰 것은 아니었다. 産業革命초기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이었으며 勞動者는 學校教育을 통해서보다도 실제의 일을 통해

(183) Bert F. Hoselitz, "Main Concepts 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Implication of Technical Change," in B.F. Hoselitz and W.E. Moore (ed.), *Industrialization and Society*, 1963; David Landes, "French Business and the Business Man: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in E.M. Earle (ed.), *Modern France: Problems of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s*. N.Y. 1964; John E. Sawyer, "The Entrepreneur and the Social Order,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 William Miller (ed.), *Men in Business: Essays in the History of Entrepreneurship*, N.Y., 1952.

(184)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 21.

서 技術을 익힐 수가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識字(literacy)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貧民을 위한 教育시설은 빈약하였다. 현실적으로 識字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教育問題가 적극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19세기에 들어 技術이 고도화되면서부터였다.⁽¹⁸⁵⁾ 그러나 國民의 識字率 증대가 社會의 知的水準 기반을 높이고 그것이 產業의 발달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힘은 보다 높은 識字率과 算數能力의 필요성을 강조하고⁽¹⁸⁶⁾ 라슬레트(P. Laslett)도 16세기 이래의 일반대중의 識字率이 증대하고 그에 따라서 支配階級の 識字獨占이 어느 정도 붕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⁷⁾

17세기 중엽이 후 識字率은 상승하고 教育시설도 증가하였다. 스톤(L. Stone)의 연구에 의하면 1675년현재 都市와 農村의 中産階級の 識字率은 75~85%의 高水準에 도달하였으며 勞動者階級の 그것도 35~40%나 되었다. 전자의 수준은 약 1세기동안 계속되었으며, 후자의 수준은 1800년 경까지 계속되었다.⁽¹⁸⁸⁾ 18세기에 貧民을 위한 教育施設은 증가하였다. 初等教育을 위한 施設로는 주부경영私宅학교(Dame Schools), 사설주간학교(Private Day Schools), 자선학교(Charity Schools), 일요학교(Sunday Schools), 산업학교(Schools of Industry) 등이 있었다.⁽¹⁸⁹⁾

특히 中産階級을 위한 中·高等教育이 발달하였다. 中·高等教育 기관으로는 17세기 말에 500개에 달한 그램머 스쿨(Grammar Schools)를 비롯하여 퍼블릭스쿨(Public Schools), 非國教徒 아카데미(Dissenting Academies) 그리고 大學이 있었다.⁽¹⁹⁰⁾ 특히 에슈톤은 非國教徒의 높은 教育水準과 그것을 뒷받침한 教育機關으로서의 非國教徒 아카데미를 중요시하고 있다. 에슈톤에 의하면 非國教徒의 地方인 스코트랜드에서는 初等教育制度가 당시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보다는 앞서고 있었지만 스코트랜드의 大學들도 그러하였다. “科學的 研究와 그의 실제적 응용에의 추진력은 햇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옥스포드라든가 케임브리지로부터가 아니라 글래스고와 에딘버러로부터 나타났다.”⁽¹⁹¹⁾ 스코트랜드에서 그들 大學이 한

(185) Sidney Pollard,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A Stud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London, 1965, pp.178-179; Neil J. Smelser, *Social Chang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An Application of Theory to the Lancashire Cotton Industry 1770~1840*, London, 1959 (reprinted 1972), pp.286-287 참조.

(186) Hill, *op. cit.*, p.229.

(187) P. Laslett, *The World We Have Lost*, London, 1965, pp.196-7.

(188) Lawrence Stone, “Literacy and Education in England 1640~1900,” *Past & Present*, No. 42, February 1969, p.109.

(189) Hartwell,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p.239.

(190) *Ibid.*, p.240; Pollard, *op. cit.*, pp.112-114, 118-119.

(191) Ashton, *op. cit.*, pp.19-20.

역할은 18세기의 잉글랜드에서는 보다 낮은 형태로 非國教徒가 설립한 다수의 아카데미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들 아카데미의 教科內容은 18세기가 경과되는 과정에서 古典보다도 科學・技術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후에 많은 産業企業家가 그곳에서 배출되었다.⁽¹⁹²⁾ 非國教徒 아카데미의 의의는 매다이어스⁽¹⁹³⁾와 윌슨⁽¹⁹⁴⁾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教育史家 한스(N. Hans)는 애슈톤이 非國教徒아카데미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것은 17세기 말과 18세기의 英國에 있어서의 中・高等教育의 전반적 발달이라는 배경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것은 특수 非國教徒아카데미보다도 보다 광범한 아카데미運動이었으며 非國教徒아카데미型の 교육은 國教徒아카데미에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잉글랜드의 오래된 大學들(옥스포드 및 케임브리지)도 科學研究에 태만한 것은 아니었다.⁽¹⁹⁵⁾ 폴라드는 1750년 이후 數的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아카데미는 18세기 말에는 200개 교에 달하였고 教科內容도 古典보다 科學・技術・商業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잉글랜드의 오래된 大學들도 純粹 및 應用科學分野에서 아무런 의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⁹⁶⁾ 또한 폴라드는 스코트랜드의 그램머 스쿨들은 古典만이 아니라 技術・實業職에 필요한 教科를 가르쳤으며 잉글랜드의 그램머 스쿨의 경우 實科教育이 의의는 종래 과소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⁷⁾ 한편 무손에 의하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學校, 大學, 도서관, 도서, 정기간행물, 백과사전 哲學協會, 순회강연 등이 더욱 보급되고 數學, 科學 및 技術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게 되었으며 公式 또는 非公式의 科學技術教育이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또한 그러한 知識의 보급은 최고의 수준에서 下級職工 및 匠人을 위한 초보적인 數學, 機械學등에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벨에서 이루어졌다.⁽¹⁹⁸⁾

이러듯 教育은 일반적으로 확대되어 社會의 모든 階級에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産業革命에 유리한 知的 條件이 되었다. 특히 中産層에서의 技術 및 實務教育의 보급은 企業家的 資質의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었다. 하아트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産業革命 이전의 英國에서는 두드러진 教育확장이 있었으며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보다 급속한 經濟

(192) *Ibid.*, pp. 20-21.

(193) Mathias, *The First Industrial Nation*, pp. 158-159.

(194) Wilson, *op. cit.*, pp. 341-342.

(195) N. Hans, *New Trends in Educa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1951; Flinn, *Origi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p. 85.

(196) Pollard, *The Genesis of Modern Management*, pp. 114-119.

(197) *Ibid.*, pp. 113-114.

(198) Musson, *op. cit.*, p. 60.

成長과 최종적으로는 産業革命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였다.”⁽¹⁹⁹⁾

IV.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産業革命의 定義와 起源의 문제에 관한 學界動向을 研究史的으로 고찰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견해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研究가 진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産業革命의 定義의 문제에 대해서는 研究者의 역사인식방법에 따라 다양한 인식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는 이 문제를 質的・構造論的 인식과 量的・成長論的 인식으로 類型的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지만 같은 유형에 속하는 研究者들 사이에도 특히 前者의 경우 見解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見解의 차이는 研究者의 인식방법과 더 나아가서는 史觀의 차이에서 결과된 것이다. 前者의 경우 社會改良의 입장에서는 토인비의 인식과 마르크스學派의 인식 그리고 文化論的 인식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産業革命을 社會・經濟의 구조적・質的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결과한 産業社會・資本主義를 비판적・悲觀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하고 있다. 한편 量的・成長論的 인식의 경우 産業革命의 技術論的 인식은 오늘날 극복되어 成長論的 인식이 일반적이다. 成長論的 인식에서는 産業革命은 ‘持續的’ 또는 ‘급속한’ 成長에 의한 經濟의 量的 확대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經濟를 연속적으로 進歩하는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 産業革命의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樂觀的으로 인식한다. 成長論的 인식은 産業革命의 연구에 經濟成長論 및 發展論의 諸概念과 數量的 分析方法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社會經濟의 質的 構造的・變化라고 하는 역사발전의 기본문제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産業革命의 時期와 連續性의 문제에 대해서는 研究者들사이에 일반적으로 見解가 접근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産業革命의 時期는 토인비에서 에슈튼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1760~1830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시기는 조지 3世(1760~1820년)와 4世世(1820~1830)의 時代이다. 그러나 數量的 分析方法의 도입에 의해서 역사적 전환점의 정확한 실정이 시도되는 속에서 새로운 時期設定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최초의 시도는 로스트우의 ‘離陸期’의 설정에서 나타났으나 그것은 그후 비판되었다. 또한 英國經濟成長

(199) Hartwell, *op. cit.*, p.244.

의 점진성을 강조하여 18世紀의 전환점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것이 1740년대 (딘 및 콜)인가 1780년인가에 대해서 見解의 차이가 있었지만 오늘날 1780년 전환점說이 유력하다(플린, 하아돔웰, 톰프슨, 홉스보움 등). 오늘날 産業革命의 時期는 일반적으로 1780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産業革命의 終期가 언제인가라는 문제는 始期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나 1840年 내지 50年說이 유력하다. 오늘날 産業革命의 時期는 1780~1840年으로 인식되고 있다.

産業革命 時期를 1780年으로 인식한다고해서 그 時期부터 급격한 變化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토인비의 産業革命의 突發性·激變說은 망무에 의해서 이미 비판되었으며 그후 量的 成長論的 인식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비판되었다. 토인비적 激變說은 마르크스學派에서도 비판되고 先行한 時期에 있어서의 발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産業革命은 先行한 시기에 있어서의 諸條件의 형성을 역사적 전제로 해서 18世紀 말엽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 學說이며 따라서 産業革命의 起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産業革命의 起源의 문제는 需要擴大, 資本蓄積·技術革新 및 人口增加를 내용으로하는 經濟的 條件과 社會的·知的 條件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었다. 産業革命에 앞서서 英國에서는 國內外市場이 확대되고 資本蓄積이 진전되고 技術進歩가 진전되고 또한 人口가 증가하였다. 한편 産業革命에 앞서서 英國에서는 市民革命을 전기로 한 政治的·社會的 變化和 自由放任體制의 成立, 金드制的 폐지, 農村共同體의 解體, 階級間的 可能性的 증대, 資本主義발달에 유리한 倫理的·精神的 풍토의 조성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9世紀의 時代思想으로서의 功利主義, 經濟的 個人主義 및 自由主義는 이미 18世紀에 그 起源을 가지고 있었으며, 17世紀의 '科學革命'와 함께 科學的 知識이 확대되고 教育도 보급되고 있었다.

英國의 産業革命이 최초의 것이며 自生的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先行한 經濟的 및 社會的·知的 條件이 유리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諸條件의 原因 및 性格에 대해서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들 諸條件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오늘날의 일반적 연구 경향으로 보면 어느 특정한 조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 보다는 그들 諸條件의 상관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英國産業革命은 先行한 時期에 조성된 社會經濟的 諸條件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自生的으로 일어나고 전개되었다. 또한 그것은 '최초의' 産業革命으로서 그후의 諸産業革命의 역사적 전제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古典的' 産業革命이었다. 그러나 後發諸國의 産業革命은 自性的으로 일어날 수는 없었으

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면서도 정책적으로 유도되는 속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그의 先行 諸條件도 의식적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안되었다.⁽²⁰⁰⁾

(200) 産業革命의 諸條件의 比較史的 研究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拙稿, 「工業化的 諸條件과 戰略에 관한 比較史的 研究」, 『經濟論集』(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第X卷 第2號, 1971年 6月(拙著, 『英國産業革命研究』, 1977년에 수록되어 있음); 張世珍 「經濟成長의 基本條件에 관한 比較史的 研究——19世紀 産業革命史를 중심으로」, 『經濟論集』, 第XV卷, 第2號(1976年 6月); 金大煥, 「經濟發展, 初期條件 및 農工均衡發展——後進國經濟의 自立的 發展을 中心으로」, 『經濟論集』, 第XVI卷, 第4號(1977年 12月).